

미래를 여는 도서관, 가고 싶은 도서관

창원도서관 종합문예지

해돋이

2017년 제 30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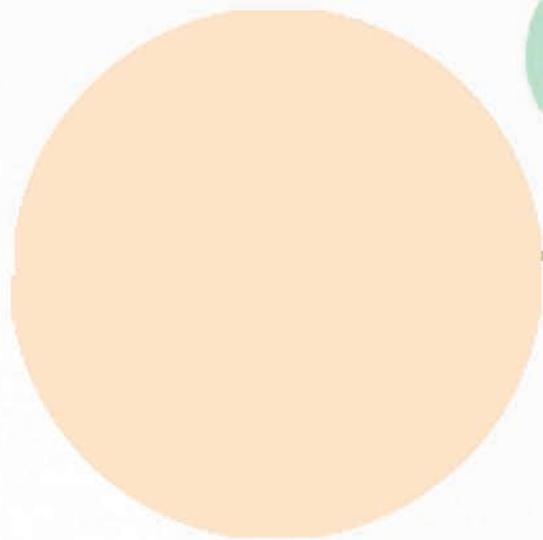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창원도서관 종합문예지

해돋이

2017년 제 30 집



2017년 제 30 집

해돋이

Contents

발 간 사	04
특 별 기 고	책은 그냥 읽는 거다 · 오찬호(작가, 사회학 연구자)	06
강 연 마 당	우리는 모두 스스로 빛을 내는 등대들이다 · 김흥식(서해문집 대표, 작가)	10
	나는 내 인생의 파일럿 · 이동진(영화제작자, 청년모험가, 비행기조종사)	15
	화가의 마지막 그림 · 이유리(작가, 전 신문기자)	19
독서회 글마당	밍로는 어떻게 산을 옮겼을까? · 장진이(한알독서회)	24
	평화란 어떤 걸까? · 장우성(한알독서회)	25
	'우주 호텔'을 읽고 · 정한나(한알독서회)	26
	힘내라, 사춘기야!!! · 최수인(글밭독서회)	27
	아이들과 함께 꿈꾸기 시작한 나 · 박영미(글밭독서회 강사)	28
	2017년 문학기행을 다녀와서 · 박영실(섬돌독서회)	30
	숨결이 바람 될 때 그리고 어머니 · 김미영(소나기독서회)	32

참여 글마당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곳, 창원도서관 · 이민경(유아자료실 이용자)	34
	우리 가족의 쉼터, 창원도서관 · 김수연(어린이자료실 이용자)	36
	글쓰기, 이제는 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 여정옥(평생학습프로그램 강사)	38
	경남독서한마당 '책 읽는 학교, 행복한 우리' · 김지혜(가고파초등학교 사서교사)	40
	2017. 길 위의 인문학 - 라이프 텔링! 삶을 쓰다	
	삶의 여유 찾기 · 정순태(길 위의 인문학 참여자)	42
	최고의 유산 · 한인숙(길 위의 인문학 참여자)	44
	효도 관광 · 박영실(길 위의 인문학 참여자)	46
	초심은 길을 잘 잃는다 · 박현식(길 위의 인문학 참여자)	48
	복숭아 인생 · 윤한나(길 위의 인문학 참여자)	49
	그녀의 사진 · 이영란(길 위의 인문학 참여자)	50
	어머님의 결혼 · 김명옥(길 위의 인문학 참여자)	51
2017. 창원도서관 독서진행행사	53	
콩콩 독서계단 밟기 - 아이들의 생각 나무	54	
창원도서관은 네모다	56	
직원 글마당	도서관과 나 · 김금지(문헌정보과)	60
	타인의 삶을 지지하는 삶을 산다는 건 · 박광열(평생학습과)	62
	사람들과의 소통, 공감에 약기보다 좋은 건 없다 · 노상옥(평생학습과)	63

발간사

어느 때보다 뜨겁게 격동했던 2017년이 저물고,
많은 이들의 희망과 염원을 담은 2018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잊히기에
우리 도서관은 올 한 해도 이용자와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을
'해돋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지나간 시간의 순간순간을 붙잡으며 고스란히 책자에 담은 추억들은
어느덧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우리 도서관의 역사로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서관은 축적된 지식 정보 자원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래의 기능을 넘어
지역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자아실현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며
시민의 생활 속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 더불어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
나누며 소통하는 평생학습 구현, 책 읽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최적의 자료를 확충하고, 특색 있는 독서진흥 행사를 운영하며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도서관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1년 동안 우리 도서관을 이용해주시고, 독서·문화 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과
바쁜 일정 중에서도 책자 발간을 위해 아름다운 글들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7년 12월

창원도서관장 김희근

책은 그냥 읽는 거다



오 찬 호 / 작가, 사회학 연구자



제목에 ‘책’이 들어간 책들이 많다. 책 읽고 인생이 달라졌다, 책 안에 진리가 있다는 등 너무 의미심장해보여 선불리 페이지를 넘기기가 두렵지만 막상 넘겨보면 만병통치약이다 그렇듯 공허하기 짝이 없다. 마치 책만 읽으면 삶의 모든 근심이 녹아버리고 어떤 고난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투다. 전 국민 강제 독서라도 하면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도 단번에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얼마나 많이 읽는지’를 자랑하는 제목들의 책들도 많다. 하루 한 권 독서, 한달 백 권 책 읽기, 일년에 천권을 읽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등 마치 ‘속독’ 분야 기네스북에 오르려고 대결이라도 하는 기세다. 어떻게라도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할지도 모르겠다만 나는 여러모로 글썽을시다.

부끄러움과 마주하는 독서

책 안에 진리 없다. 답도 없다.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긴 어렵다.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이유는 책은 내가 진리라 믿는 것들에 균열을 일으켜주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그게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책을 정말로 제대로 읽는다면’ 그리 쉽게 말하지 못한다.

가끔 진학(대학원)과 취업 사이에 고민하는 학생들과 상담할 때, 나는 ‘더 공부하는 것’의 장점을 하나 소개한다. 9년간의 대학원 생활 동안 도서관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책의 가치를 나름 고민할 시간이 있었는데 결론은 책 속에서 진리를 쫓 꼬집어낸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였다.

몇 번의 망신 끝에 얻은 철학이다. 가끔 우연히 접한 책 한 권 읽다가 연구주제가 기똥차게 떠오를 때가 있다. 몰랐던 사실 하나를 알면 갑자기 머릿속에 전구가 반짝반짝해지면서 상상력이 분출된다. 스스로가 대견할 정도로 예리한 질문이라 생각해서 으쓱한 마음에 지도교수에게 자랑도 한다. 그럴 때마다 교수님은 “그래, 지금은 웃을 때지.” 라고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웃지 못할 거라는 표정이셨다.

의문은 하루 만에 풀렸다. 다음날 도서관에 가니 어제의 기세당당했던 내 모습이 민망해져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내가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안 읽었기’ 때문이었다. 세상에나, 어찌 내가 ‘떠올렸던’ 생각들을 이리도 많은 사람들이 다루었던 말인가. 한두 명도 아니고 장르블문 온갖 영역에서 ‘내 관심’은 곧 다른 사람의 관심이었다. 나아가 내 생각을 비판하는 책들도 부지기수였다. 나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다. 확신이 컸던 만큼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내 모습이 참으로 한심해 보인다.

하지만 말하기 전에, 글쓰기 전에, 읽을 책들을 마주하는 허망함은 사실 짜릿하다. 그러지 않고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면서, 내 생각이 정답인양 떠들었다면 제대로 망신을 당했을 테니 말이다. 책을 읽을수록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부끄러움 아니겠는가. ‘희열’을 안겨주기 위함이 아니라 ‘무지’를 자각시켜 자신의 민낯을 까발려주는 것이 바로 독서다. 이 부끄러움이 반복되면 ‘아주 조금’ 기존의 자신 생각에 균열을 일으켰다고 고백할 수 있다. 하나의 책을 덮으면 또 다른 책을 읽지 않고서는 쉽사리 내 생각을 정리하기 힘든 느낌, 그런데 영원히 또 다른 책을 찾아야 하는 미궁의 세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 이 과정에서 내가 무의식 중에 뱉던 말들, 태연히 하던 행동들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독서의 ‘기능’이다.

‘책을 읽고 실수하지 않게 되었다!’와 ‘책을 읽을수록 오늘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책의 동일한 기능을 말하지만 전혀 다른 표출방식이다. 책 읽고 진리 찾았다는, 주술 수준의 말들이 빈번하고 책 몇 권 읽는지를 떠벌릴 수 있는 건 독서조차 사람을 ‘가르느’ 기준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평가하는 세상답게, 모든 잣대로 타인과 나를 비교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세상답게 사람들은 ‘책 읽고 감명받을 줄 아는’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별걸 다 경쟁하는 시대에서 사람들은, “나는 책 읽고 진리 찾았는데, 넌 왜 안 읽어?”라고 물으며 스스로의 가치를 드러내며 타인을 폄평하기 바쁘다. 너도나도 책 속에서 진리 찾았다면서 허풍의 수위가 높아지자 이제는 ‘빨리’ 읽는지를 경쟁한다. 한 달에 백 권을 읽는다고? 음식은 체하면서 빨리 먹기라도 하겠다면 책은 이조차도 어렵다. 아! 다 흘리고 먹었다면 가능은 하다.

독서를 교육하는 시대

작가라고 불리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난감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잦아졌다. 분명 특별한 게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차서 자녀에게 ‘독서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를 묻는 분들을 강연장에서 만나면 참으로 민망하다.

나는 독서와 교육이 결합되어 있는 현실이 야속하다. 세 살 때부터 사교육 받는 세상에서 독서조차 교육이라니 너무하다. 물론 한국의 교육이 세계의 모범이 된다면 무슨 걱정이겠는가. 그러지 않으니 독서교육은 무섭다. 모든 걸 평가해서 줄 세우기가 목표인 교육, 잘했다고 박수받고 못했다고 벌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철학이 독서에 이식된다면 끔찍하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어느 날 가정통신문이 왔는데 한 달간 매일 읽은 책의 독서목록을 적어 오란다. 이름도 해괴한 ‘독서왕’을 뽑는다나 뭐라나. 한 권보다 두 권이 승자가 되는 게임이라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두 페이지만 읽다가 책 속의 내용을 가지고 하루 종일 수다 떠는 것보다 오늘 ‘몇 권 읽었는지’를 부모가 확인하는 게 무슨 기준으로 ‘좋다’는 것일까?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는 독서는 ‘낙오’라도 된다 말인가?

초등학생들의 독서교육도 다르지 않다. 집에 책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책 읽기 좋아하는 딸이 아무것도 모르고 방과 후 수업으로 독서토론을 신청했다가 진저리가 난 적이 있다. 이유인즉, 수업이 끊임없이 ‘요약’, ‘찬반으로 나눠서 생각하기’를 반복한다는 거다. 시간 내로 요약하라니 ‘잡념 없이’ 무조건 끝까지 읽어야 된다. 평소 하지 못한 잡념에 빠지니 독서가 소중한 것인데 말이다. 창의력을 키운답시고 던지는 질문들은 오히려 상상의 날개를 꺾는다. 저자가 ‘반대’를 전개하고 있는데 ‘찬성’ 쪽 입장을 억지로 생각하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느낄 수 없다. 균형 잡힌 시선이 중요하다면, 책의 내용을 이리저리 비틀지 말고 다른 책을 읽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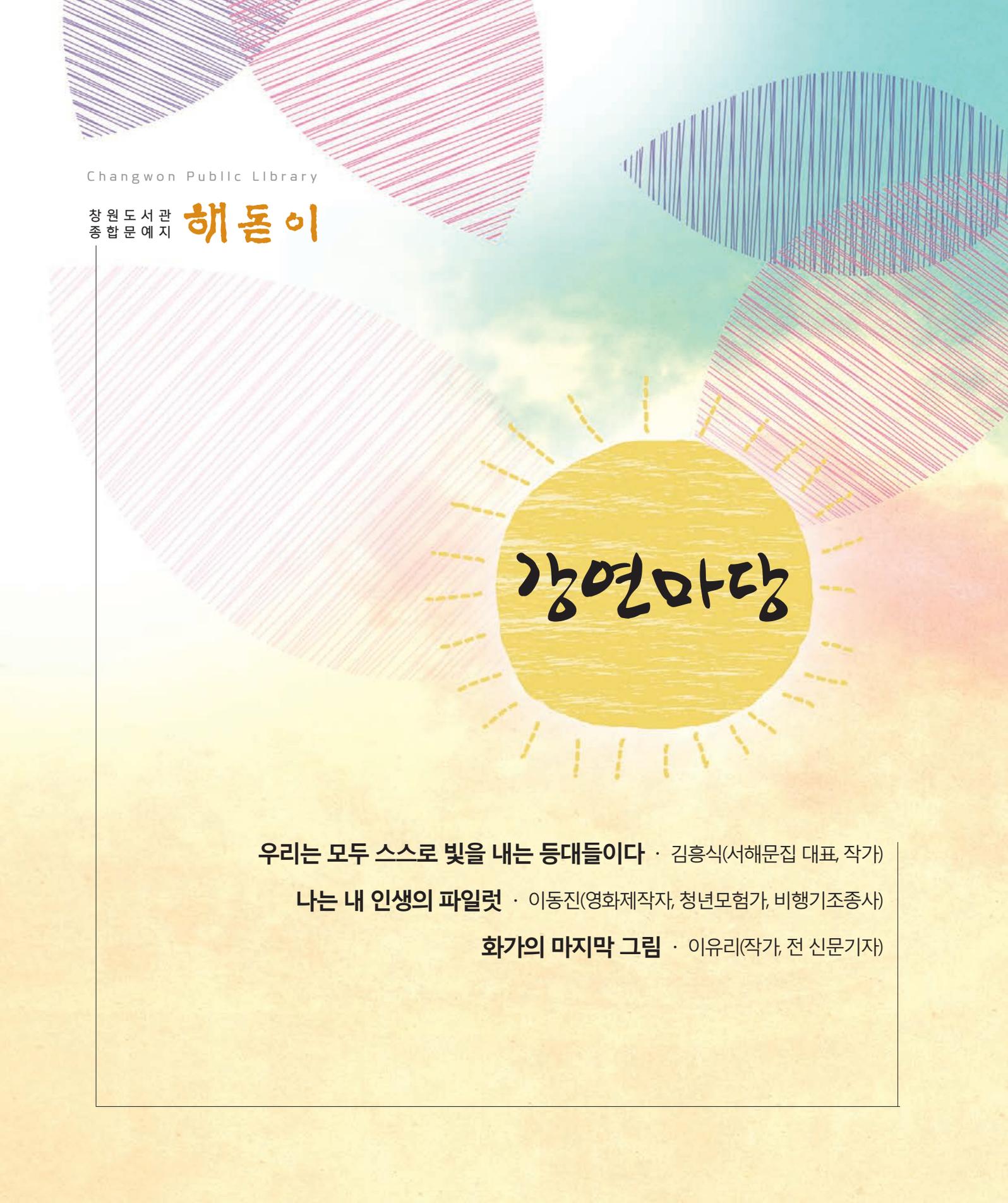
가끔 초등학생 독서토론 대회에 주제넘게 심사위원으로 초대받기도 하는데 솔직히 가관이다. 정답이 없는 책에서 정답을 말하고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 어색하지 않겠는가. 특히 왜 그렇게 ‘자신이 책을 읽고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하는데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강박 아니겠는가.

독서는 그저 머릿속 생각을 조각내고 이전의 떨어진 조각을 다른 그림에 끼워보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거 읽고 저거 읽다가 퍼즐을 완성하고 동시에 또 떨어진 조각과 마주하는 게 독서다. 쉽사리 ‘뚝 부러지게 말해서는 안 됨’을 알아가는 겸손의 과정이 누적되면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독서는 도와줄 뿐이다. 시민은 책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기도, 안 읽는 사람 혐오하기도, 그리고 책만 읽으면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는 주술에 빠지지도 않는다. 책은 그냥 읽는 거다. 물론 어떻게든 자신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지만 가능할 게다.

Changwon Public Library

창원도서관
종합문예지

해돋이



강연마당

우리는 모두 스스로 빛을 내는 등대들이다 · 김흥식(서해문집 대표, 작가)

나는 내 인생의 파일럿 · 이동진(영화제작자, 청년모험가, 비행기조종사)

화가의 마지막 그림 · 이유리(작가, 전 신문기자)

우리는 모두 스스로 빛을 내는 등대들이다!

세상을 위해 빛을 내는 등대!

김 흥 식(서해문집 대표, 작가)

1. 2017년 대한민국 청소년은?

2017년 오늘,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성인들은 그 누구도 투표권조차 없는 청소년들이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활동하고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대신 청소년들은 아직도 성인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될 뿐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역사를 되돌아보면 나이에 따라 몇 살 이하는 독립적인 존재로 활동할 능력이 부족하고 몇 살 이상은 무조건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 어떤 기준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까운 예만 살펴보자.

최인호 (대한민국 작가) - 고3인 18세에 신춘문예에 당선하여 등단.

황석영 (대한민국 작가) - 19세에 잡지사 신인상을 받고 등단.

이이 (조선조 학자) - 13세에 진사시에 합격.

모차르트 (오스트리아의 음악가) - 12세에 오페라 〈바스티엔과 바스티엔느〉 작곡

윤동주 (대한민국 시인) - 19세에 첫 작품 발표, 24세에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완성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젊은이가 미성년의 나이에 자기 삶의 길을 결정했을 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어왔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의 잠재력에 대해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청소년들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2. 그렇다고 우리는 그저 기성세대를 향해 싸움만 걸 것인가?

이러한 상황을 맞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하나는 기성세대가 원하는 방식대로 열심히 공부하여 성공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 애쓰는 청소년이다. 물론 그렇게 애쓴 결과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 그럼에도 특별히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 따라갈 뿐이다. 오죽하면 서울대 교수라는 자가 ‘아프니까 청춘’이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현실을 수용해야 한다고 가르치겠는가. 이 교수의 전공은 청춘심리학이나 사회학과는 전혀 다른 <소비자학과> 교수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자본주의가 잘 운영되고, 모든 사람은 사회 체제에 순응하며 소비하고 고분고분하게 사는 곳일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하나는?

기성세대를 향해 무조건적으로 반항하는 계층이다. 이들은 모든 책임이 자신들을 이해해 주지 않는 기성세대에 있다며 기성세대의 주장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런데 이 두 계층 모두에게 공통점도 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두 계층 모두 미래에 대한 꿈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성세대를 따르는 친구들은 자신의 꿈을 설정할 겨를도 없이 기성세대가 원하는 삶, 그들이 가리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생각할 시간도, 여유도, 자유도 주어지지 않는다. 성적에 따라 의대, 법대, 교대, 상대..... 순으로 진로를 결정할 뿐이다.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성적에 따라 결정될 뿐이다.

기성세대에 반기를 든 친구들 또한 자신의 꿈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은 마찬가지다.

그들은 이미 기성세대에 의해 운용되는 사회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어떤 꿈도 실현시킬 수 없다. 또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꿈을 꾸는 것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다. 다만 하루하루 신나게 놀고 살고 먹을 뿐이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고 외치며, 이를 자랑스러운 젊음의 훈장처럼 내세운다.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건 기성세대를 향해 싸움을 거는 것이다.

물론 싸움의 형식은 다르다. 기성세대를 따르는 친구들도 내면에서는 기성세대를 향해 온갖 욕설과 삿대질을 한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그들은 기성세대의 부도덕과 위선, 거짓과 탐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싸움을 걸면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칼은 마음속에 감추고 겉으로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웃음을 보인다.

기성세대에 반기를 든 친구들은 노골적으로 기성세대를 향해 욕설과 삿대질을 보낸다. 그리고 이미 자신들과 다른 길을 걷는 친구들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욕설과 삿대질에 더욱 힘을 가한다. 마치 그러한 행동이 훈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3. 그 결과, 우리의 미래는 없다. 우리가 살아갈 사회 또한 거짓으로 충만할 뿐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 두 계층의 청소년들도 사회의 주인공이 된다.

한 계층은 사회의 지배층이 되어 기성세대가 해왔듯이 똑같이 부도덕과 위선, 탐욕과 거짓을 일삼으며 돈과 권력을 휘두른다.

다른 계층은 이미 사회의 밑바닥으로 내팽개쳐진 상태에 놓인다. 그리하여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 기성세대를 향한 욕설과 삿대질 또한 아무런 효과도 없음을 그때쯤 되면 깨닫게 된다. 이제 그들은 아무런 꿈도 미래도 설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루하루 생존해 나갈 뿐이다.

두 계층이 살아가는 사회는 그리하여 미래가 없다. 현실에 만족하며 위선을 행하는 계층과 현실에 수궁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계층만이 있다.

이렇게 해서 1% 대 99%가 갈등하는 사회는 끊임없이, 아니 오히려 더욱 확대되면서 지속된다.

이런 사회는 결코 희망적이지 않다.

이런 사회는 결코 꿈과 행복을 전해주지 못한다.

4. 결국 우리가 변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기성세대의 논리가 틀렸음을 알면서도 그들을 따라 부자가 되는 길, 권력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한 길을 가야 할까?

그게 아니라면 기성세대에 무조건 저항하면서 내 꿈과 미래를 짓밟는 행동에서 만족해야 할까?

결코 그래서 안 된다. 왜?

우리는 그 스스로 독립적이고 세상, 아니 우주 전체를 통틀어 가장 소중하며 빛나는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누가 우리를 얕잡아보고 조종하려 하고 비웃는다 해도, 우리는 그런 대상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누군가 나를 비웃는다 해서 나를 버리고 내팽개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바다.
따라서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그들을 향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임을 깨달아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삶의 주인은 나이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삶의 궁극적 목표는 꿈의 실천이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웃과 사회에서 빛나는 존재이다.

5.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해 우뚝 서 있는 등대요, 밤하늘을 빛나게 만드는 별이다.

등대는 결코 자신을 위해 서 있지 않는다.
등대는 자신을 위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회,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위해 365일, 365년 동안 그 자리에 우
뚝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더 높은 등대가 되고자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올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
무한한 밤하늘을 이루는 것은 가장 밝게 빛나는 태양이 아니다. 태양이 사라진 후에 비로소 밤하늘은 그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내가 가진 가장 작고 약한 빛이야말로 밤하늘을 아름답게 만드는 존재인 셈이다. 따라서 가장 약하고 가진 것 없고 모
든 사람이 거들떠보지 않는 나야말로 밤하늘을 밤하늘로 만드는 가장 소중한 존재인 셈이다.
우리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

6. 책은 우리를 하늘로 올려줄 동아줄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저 높은 등대 위로, 더욱 높은 밤하늘로 끌어올릴 것인가.
바로 책이다.
책 속에는 우리보다 더 가난했고, 우리보다 더 고통 받았으며, 우리보다 더 절망해야 했고, 우리보다 더 버림받았으
며, 우리보다 더 약하고 힘없으며, 우리보다 더 “내일은 없다.”고 울부짖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책 속에서 아무 조건 없이 안아줄 친구를, 나를 위해 울어줄 이웃을, 너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임을 확인시켜주는 촛불을, 분노할 뿐 아무런 꿈도 희망도 능력도 가지지 못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어깨를 내주며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인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책이 갖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진짜 책의 소중함은 다른 곳에 있다.

그건 책 속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세상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여행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즐길 수 없는, 도전할 수 없는 세상이다.

그러하기에 책을 접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미래란 고작해야 텔레비전이나 주위 어른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것뿐이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친구들의 꿈은 한결같다. 연예인, 요리사, 디자이너, 만화가, 아니면 어른들이 요구하는 미래인 교사, 법관, 의사, 공무원 등등이다.

그러나 책 속에는 무수히 많은 길이 펼쳐져 있다.

게다가 그 길을 걷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여행하는 것과 같아서 즐겁기 그지없다.

낯선 곳을 여행하는 것이 즐거운 만큼 낯선 세상을 품고 있는 책을 펼치는 일은 즐겁다.

단 한 번뿐인 삶을 살면서 이 많은 길에는 발걸음 한 번 내딛어보지 않은 채 그저 남들이 가는 길만 따라가야 한다면 얼마나 아까운가.

훗날 후회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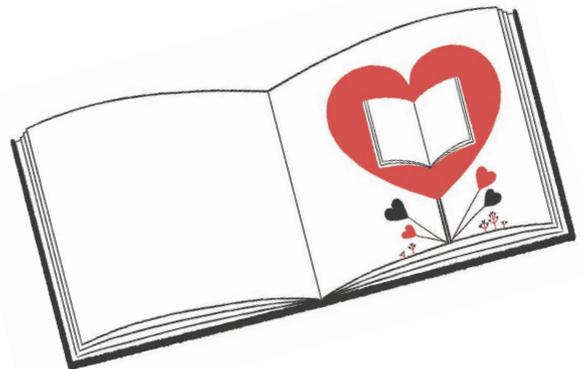
노인을 바라보는 나는 오늘도 책을 펼친다.

왜?

즐거움을 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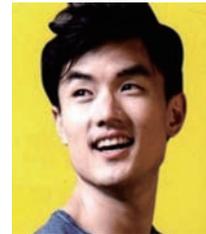
다른 어떤 것도 전해주지 못하는 환희를 안겨주니까.

그리고 덤으로 지혜와 지성, 지식까지 전해주니까.



나는 내 인생의 파일럿

무모한 도전은 나의 인생을 무한도전으로...



이 동 진(영화제작자, 청년모험가, 비행기조종사)

20대 대학생 시절 저는 꿈이 없었고, 목표가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은 더해갔고, 삶의 목마름과 갈증이 시작 되었습니다. 우연찮은 기회로 무모해 보이는 도전들을 시작했고, 그 도전들이 모여서, 변화하는 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을 바꾼 그 경험들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뭐든지 중간만 하는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그랬고, 운동도 그랬습니다. 성격은 소심하기 그 지없었고, 우유부단함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남 앞에 나서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3이 되었고, 늘 중간만 하던 저는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들 하는 만큼만 눈치를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대학원서 접수 날, 원하는 학교 두 곳과 배치표상 제 점수가 맞아 떨어지는 어느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제 평생 처음 들어본 학교였고, 원하는 학과도 아니었습니다. 12년의 공부 인생을 단 30분 만에 결정짓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고 생각한 대로 원하는 대학은 모두 떨어지는 결과를 맞아야했습니다.

저는 재수를 결심 했고, 정동진에서 일출을 보고 돌아온 후 2월 한 달 동안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원에 가장 먼저 가서, 가장 공부하기 좋은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15시간의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첫날 저는 문을 잠 그고 평평 울었습니다. 6년 동안 공부를 했더라면, 아니 3년 아니 1년만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쯤 대학에서 친구들과 과 웃으면서 낭만을 즐기고 있었을 텐데... 내일부터 일 년간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미 친 듯이 30여분을 울고 나니 갑자기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해보자.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해보자!'

그리고 나에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만큼, 중간에 절대 포기만 하지 말자고.

그렇게 일 년간 단 하루를 빼고는 모두 학원에 나갔고, 친구들도 사귀지 않았으며, 밥도 혼자 먹었습니다. 심각하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잘하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공부라도 제대로 해내야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능이 끝나자마자 저는 교문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잘 보아서? 아니면 후련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저 자신이 자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열심히 살면, 굳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무얼 하든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공부와 성적, 대학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나름의 자유를 만끽하던 대학생이 되었지만 문득 떠오른 생각들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살아야하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걸까, 내가 대학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 내 꿈은 뭐지?’ 그리고 질문의 답은 당시에 만났던 두 명의 형을 통해서 어렵פות이 찾을 수 있었는데, 바로 주체적으로 살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제 삶의 의문은 항상 누군가가 차려놓은 밥상에 참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뜻 없이 살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고, 나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에게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 기회는 그리 멀지 않게 찾아왔습니다. ‘오지 탐사대’ 라는 히말라야 원정대 선발에 최종 합격하여 파키스탄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원정대 15명과 포터(원정기간 동안 모든 식량과 장비 운반을 도와주는 현지 고용인) 50여 명으로 출발했습니다. 등반 첫째 날, 출발한지 3시간 만에 포터 중 한 명이 낭떠러지로 낙하하였고, 구출한 지 30여분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제 눈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아야 했고, 삶과 죽음에 대한 나의 가치관과 생각이 모조리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등반 내내 삶과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쓴일기중〉

2010년 7월 24일

포터가 죽었다.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머리가 찢어지고, 얼굴이 핏덩이로 바뀌었다. 포터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팀 중에 나를 포함한 두 명이 함께 왔던 길로 돌아갔다. 이미 그는 끌어올려져 있었고, 맥박을 확인했다. 아직 한쪽 눈이 움직이고

7초에 한 번씩 큰 숨을 쉬었다. 골반 왼쪽이 돌아갔고, 배 옆이 찢어졌으며, 얼굴과 입에서는 계속 피를 토해낸다. 믿기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단지 한시라도 빨리 마을로 데려가 돌보는 방법 외에는. 응급처치라도 정확히 알아둘 것을... 생각을 뒤로하고 8~9 명의 포터들이 그를 옮기고 있는 중에 그는 큰 숨을 한번 쉬더니 더 이상 한쪽 눈동자의 움직임조차 없다. 맥박을 재야 한다. 대장님께서 맥박을 다시 재어 봤다. 그는 죽었다. 불과 30분 만에 돌아갔다. 그런데 나는 어떤 감정도 없다. 너무 모든 게 바람 불 듯이 지나갔다.

거대한 자연 안에 속해 있는 인간에게 당연히 받아 들어야 하는 엄연한 현실이다. 텐트에 들어왔다. 나 또한 현실로 돌아왔다. 텐트 주위로 빙하 계곡이 내려오고 있다. 얼음처럼, 아니 얼음보다 살을 더 에도록 만든다. 오늘은 그런 날이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항상 과거에 얽매이고, 내일만을 바라보며 미래를 쫓던 저에게 그 경험 이후, ‘현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이 없으면 미래도 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감각, 세포 하나하나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내일 내가 죽는다 해도 후회되지 않을 만큼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원정을 떠나기 전에 저는 히말라야 정상의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생각으로 하루하루 어려운 과정을 버텼지만, 정상에 도착했을 때 순간의 희열과 대자연의 장관 말고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산에 오르는 과정 그 자체이며 정상을 오르고 말고는 그 후의 문제라는 것을... 그러면서 등반 과정 자체가 우리 인생과 닮아서 나는 인생의 어디에 중점을 두고 달려 나가야 할까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인생도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지, 결과가 좋다고 반드시 성공일 수는 없고, 결과가 나쁘다고 실패로만 규정지을 수는 없으며,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나쁘다면 비록 성공했더라도 그건 실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결실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히말라야를 동반하며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히말라야 원정을 시작으로 저의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브라질 아마존 마라톤’과 ‘미국 자전거 대륙횡단’의 경험도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2011년 10월, 222km의 아마존 정글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7일간 발바닥에는 물집 20개가 잡히고 6개의 발톱이 빠지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45명의 참가자 중 전 구간 완주자는 11명 뿐이었고 저도 그 완주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마라톤이 시작되고 3일 째 되던 날 페이스가 같아서 함께 호흡을 맞추며 달리던 영국인 친구가 나무에 다리가 걸리면서 팔에 30여 개의 가시가 박혔습니다. 매번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늦게 도착할 경우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잠깐의 고민을 하다가 이 친구를 버리고 혼자 간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함께 뛰어 온 거리를 다시 되돌아가 치료를 받고 4시간 만에 다시 출발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제시간 내에 들어왔고 모두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만약 혼자 결승점에 들어왔다면 저는 분명히 후회했을 것입니다. 열 명이서 함께 걷는 한 걸음이 혼자서 걷는 열 걸음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결과보다 더 아름다운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15일 간의 브라질 마라톤 대회 일정을 마무리했지만 비행기 티켓은 3개월이라는 기간이 더 남아있었습니다. 대회만 마치고 돌아와도 되지만 미국을 경유하는 일정을 생각하니 미국에서 올해 도전의 종지부를 찍는 뭔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서점으로 가 미국 지도를 샀고, 가고 싶은 곳을 정해 펜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전거로 대륙 횡단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20여 곳의 아웃도어, 자전거회사에 기획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답장을 받아준 곳은 없었지만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 한 곳의 자전거 회사와 연결이 성사되었습니다. 친구와 저의 열정 하나만을 보고 협찬과 지원을 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꿈을 향해 멈추지 않았던 저의 시도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제 도전들은 또 무엇이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남들과 마찬가지로 매 순간의 도전이 두렵습니다. 재수를 할 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도전들을 할 때, 아마존을 혼자 펼 때도, 히말라야에서 포터가 죽었을 때도, 미국 사막을 혼자 달릴 때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줌으로써 숨겨진 제 가능성을 발견하고 싶은 열망이 더 컸습니다. 누구의 삶도 아닌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제 삶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망설이기보다는, 그 두려움을 받아들여기로 마음먹은 순간 모든 것은 바뀔 것입니다.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당장의 실패가 두렵고, 내일이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도전을 통해, 기꺼이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전하십시오.

화가의 마지막 그림

-반 고흐 새로 쓰기-

이 유 리(『화가의 마지막 그림』저자, 전 신문기자)

랑스 오베르 쉬르 우아즈 밀밭에서, 한밭의 총성이 울렸다. 1890년 7월 27일 땅거미가 질 무렵이었다.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는 주변의 밀을 자신의 피로 물들인 채 곧바로 쓰러졌다. 총탄이 그의 심장을 벗어나 왼쪽 늑막을 관통하고 척추와 횡격막 근처에서 멈춘 것이다. 다행히 반 고흐의 숨은 아직 붙어있었다. 잠시 기절했다 깨어난 그는 배를 움켜진 채 비틀거리면서 자신의 하숙집 다락방으로 돌아갔고, 끄끙거리며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핏자국을 발견한 집주인 라보가 반 고흐의 방으로 들어가 “아프냐?”고 물었고, 반 고흐는 입고 있던 셔츠를 들어올렸다.

이튿날, 평생의 후원자이자 미술상이기도 한 친동생 테오가 형에게로 급하게 달려왔다. 반 고흐는 하루 동안 신음하다 서른일곱의 나이에 테오 품에 안겨 숨을 거뒀다. 1890년 7월 29일 새벽이었다. 그가 테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제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였다.



▲ 빈센트 반 고흐, 〈까마귀가 나는 밀밭〉, 1890년, 캔버스에 유채, 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

많은 사람들이 <까마귀가 나는 밀밭>을 반 고흐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이라고 지금까지 믿고 있다. 사실 이해할 법도 하다. 이 작품이 불러일으키는 강렬한 감정이 반 고흐의 비극적인 죽음과 잘 겹쳐지기 때문이다. 그림을 한번 살펴보자. 당시 반 고흐를 짓누르던 우울증을 반영하는 듯 어둡게 깔려있는 구름 아래, 밀들은 미친 듯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그 위로는 마치 하늘에 흉 자국을 남기듯 까마귀 떼가 거칠게 날개 짓하고 있다. 영락없이 반 고흐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드라마틱한 유서’같다.



빈센트 반 고흐, <나무 뿌리>, 1890년, 캔버스에 유채, 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

하지만 반 고흐는 <까마귀가 나는 밀밭>을 완성한 뒤에도 그림을 더 그렸다. 죽음 직전에 시작했으나 채 완성하지 못한 <나무 뿌리>가 바로 그것이다.

수없이 많은 화가들이 나무를 즐겨 그려왔지만, 반 고흐처럼 나무 밑둥치와 뿌리를 중심으로 그린 화가는 거의 없다. 게다가 반 고흐의 그림 속 나무 뿌리들은, 마치 제 힘으로 움직여 흙을 뚫고 나온 듯 생명력에 부풀어 있다. 어찌 보면 스스로가 지닌 에너지에 압도당해 몸부림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네덜란드 반 고흐 미술관 연구사 루이 반 툴보르흐(Louis van Tilborgh)와 베르트 마스(Bert Maes)는 이 그림을 주목하고 오래도록 집중 연구해왔다. 그 결과 2012년 6월에 그들은 <반 고흐:새 발견(Van Gogh: New Findings)>이라는 책을 내고 ‘<나무 뿌리>가 반 고흐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발표했다.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나무 뿌리>의 위쪽은 완성되었지만, 그림의 밑 부분은 스케치가 남아있는 부분에 채색이 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왜냐하면 반 고흐는 하나의 그림을 시작하면 어쨌거나 끝을 내는 작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테오의 큰처남 안드리스 봉허(테오의 아내인 요안나 봉허의 오빠)의 편지가 새로 발견됐는데, 봉허는 편

지에서 반 고흐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있던 그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죽기 전 아침에 그는 나무덤불 (sous-bois)을 그렸다, 햇빛과 생명으로 가득한.” 반 틸보르흐와 마스는 이 편지에서 언급된 ‘나무덤불’이 바로 <나무 뿌리>라고 결론지은 셈이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나무 뿌리>는 반 고흐가 죽을 때 그의 이젤에 서 있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 고흐는 왜 죽기 직전까지 이 작품을 완성하려 애를 썼을까.

반 고흐는 사실 1882년에 <나무 뿌리>와 비슷하게 나무의 ‘밑동’ 부분을 스케치한 적이 있었다. 반 고흐는 당시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보내며 뿌리 스케치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 편지가 유작 <나무 뿌리>를 통해 반 고흐가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추측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준다.



빈센트 반 고흐, <모래 바닥 위의 나무뿌리들>, 종이에 연필, 1882년, 네덜란드 크롤러-윌러미술관

“(...) 다른 그림은 <뿌리>이다. 모래 섞인 바다 위로 나무뿌리들이 드러나 보이는 풍경이다. 나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인물에 부여했던 것과 같은 감정을 풍경에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 힘없고 연약한 여인의 초상화에서처럼, 온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대지에 달라붙어 있지만 폭풍으로 반쯤 뽑혀 나온 이 시커멓고 울퉁불퉁하고 웅이투성이의 뿌리들 속에, 살아가기 위한 발버둥을 담아내고 싶었다. 자연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로 충실하게 다루려 노력하다보면 여인 속에도, 뿌리 속에도 위대한 몸부림이 저절로 드러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적어도 내 눈에는 이 그림들 속에 어떤 감정이 들어있는 것 같구나.” (테오에게 보낸 1882년 5월의 편지 중)

<나무 뿌리>가 1882년 스케치와 같은 주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더 나아가 ‘스케치의 완성작’으로 학계에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감안해본다면, 조금 의아해진다. 반 고흐는 유작을 통해 ‘술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 ‘좌절을 이기려는 발버둥’을 이야기하려 했다는 사실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 고흐는 끊임없이

자신을 짓누르는 불행에 못 이겨 ‘권총으로 자살한 사람’으로 알려진 화가가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왜 수시로 닳치는 좌절 속에서도 끝끝내 ‘생명’을 이야기하는 그림을 마지막으로 남겼던 것일까.

세상의 몰인정,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우울증과 정신질환, 자신의 귀를 자르는 것으로 귀결된 ‘화가 공동체’라는 산산 조각난 꿈. 1890년 7월 27일 총상을 입었을 당시, 반 고흐의 상태는 이렇게 최악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껏 아주 간단히 그가 자살했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하지만 그것이 반 고흐가 자살했다는 확연한 정황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반 고흐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자살은 큰 죄이며 아주 비도덕적’이라고 편지와 일기 등에 여러 차례 기록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반 고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일까? 나이페와 화이트 스미스 교수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10대 소년 2명을 용의자로 꼽았다. 그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반 고흐를 놀리거나 건드리곤 했었는데, 사건 당일에도 평소처럼 놀리고 쫓아가는 중간에 우발적으로 총을 쏘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추정’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반 고흐가 마지막까지 <나무 뿌리>를 그리며 ‘생명’을 이야기했다는 데 있다. 이 <나무 뿌리>가 미완성이라는 점도, 그의 죽음이 예기치 않게 닳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자살했다면 그가 ‘생명’을 이야기하는 작품을 마지막까지 그릴 수 있었을까? 총상을 입은 반 고흐의 재킷에서 발견된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는 흔한 유언 하나 없이 여느 때처럼 테오에 대한 걱정만 가득하다. 반 고흐는 명징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다른 화가들은 현재 미술 시장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피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우리의 그림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내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했다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는 단순히 코로의 그림을 파는 화상에 불과하지 않다. 나를 통해서 너는 나름대로 이러한 난리 속에서도 유유히 존재감이 빛나는 그림들을 창조하는데 일조한 것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이자 상대적으로 위기에 처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이다. (...) 내가 아는 한 너는 사람을 거래하지 않고 진심으로 인류애를 가지고 화상으로서 네 일에 충실하다는 것을 안다”

반 고흐가 언급한 ‘너는 단순히 코로의 화상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말은 ‘너는 가장 잘 팔리는, 19세기 자본주의사회에서 성공한 화가의 화상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코로는 19세기 후반 프랑스 풍경화의 명인으로, 19세기 말 미국의 석유재벌이나 철강 재벌들이 그의 작품을 가장 많이 구입했다. 그러니 반 고흐가 동생에게 단순히 ‘가장 상품화된 작품만 파는 장사꾼’ 정도로 비하하지 말라는 충고를 하고 있는 셈이다. 대신 그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희망과 인류애를 가지고 미술시장에서 제 역할을 다하자’는 당부를 하고 있다. 마치 <나무 뿌리>에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좌절 없이, 발버둥 치며 마지막까지 살아내는 모습’을 찬양하듯이 말이다. 그렇기에 <나무 뿌리>는 반 고흐 그 자신이 스스로에게 거는 삶의 주문이자, 어쩌면 테오에게 건네는 또 다른 편지였을 지도 모르겠다.

Changwon Public Library

창원도서관
중합문예지

해돋이

독서회 글마당

밍로는 어떻게 산을 옮겼을까? · 장진이(한알독서회)

평화란 어떤 걸까? · 장우성(한알독서회)

'우주 호텔'을 읽고 · 정한나(한알독서회)

힘내라, 사춘기야!!! · 최수인(글밭독서회)

아이들과 함께 꿈꾸기 시작한 나 · 박영미(글밭독서회 강사)

2017년 문학기행을 다녀와서 · 박영실(섬돌독서회)

숨결이 바람 될 때 그리고 어머니 · 김미영(소나기독서회)

밍로는 어떻게 산을 옮겼을까?

장 진 이 / 한알 독서회

저는 ‘창원도서관 2017년 한알 독서동아리’에서 하브루타를 통해 이 책을 알게 되었어요. 하브루타는 유테인들처럼 생각할 거리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고 답을 생각해보면서 토론을 하는 것인데 학교와는 다른 수업 방식이 참 재미있었어요. ‘밍로는 어떻게 산을 옮겼을까?’란 책은 제가 하브루타에서 읽은 책 중에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밍로와 밍로의 아내가 같이 집에서 살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산 밑에 집이 있어서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돌맹이도 떨어지고, 비가 와서 집안이 눅눅하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보라고 하여 남편은 노인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 노인이 가르쳐주는 방법으로는 산이 끄떡도 하지 않았지요. 그래도 계속 그 노인을 찾아갔는데 노인이 제안한 최후의 방법은 ‘짐을 싸고, 집도 쪼개어 들고, 눈을 감고, 노인의 스텝을 따라하는 것’이었어요. 그 스텝은 바로 ‘뒤로 가는 것’이었지요.

남편 밍로는 그 스텝을 외우고 아내와 같이 하였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산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스텝은 그냥 짐을 싸고 이사하는 거와 같죠?

제 생각에 이 노인은 정말 지혜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노인이라면 “움직일 수 없는 산을 옮기려 하지 말고 집을 더 튼튼하게 지으세요.”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노인이라면 어떤 대답을 하실 거예요? 자신 나름의 대답을 생각해보면서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란 어떤 걸까?

장우성 / 한알 독서회

친구들아, 안녕! 나는 장우성이야. 나는 “평화란 어떤 걸까”라는 책을 읽고 친구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평화’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해. 먼저 내가 쓴 시를 소개할게.

평화란 무엇일까

장우성

평화는
전쟁 안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통일
하는 것

폭탄, 핵미사일을
터뜨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무기를
생각하지 마

평화를 생각해

그렇다고
갈등을 안 하는 것도
조금
안 좋아

내가 쓴 시 잘 읽어 봤어?

나는 평화란, 통일하는 것, 전쟁을 하지 않는 것, 누군가의 집을 파괴하지 않는 것, 폭탄 따위를 터뜨리지 않은 것, 싸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평화의 한자는 평(平)인데 푸른 평평할 평, 和는 화목할 화를 쓰지. 즉, 푸른 평등하다, 누구든지 똑같다는 뜻이고, 和는 서로 화내거나 싸우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해.

어쩌면 평화를 만드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게 아닐까?

우리가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찾아보자.

1. 서로를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기
2. 통일하고 서로를 사랑해주기
3.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
4. 싸움을 하고 싶을 때는 핵폭탄이나 무서운 무기가 아닌 장난감으로! 아니면 말로 해결하기

어때? 이 정도는 모두가 노력한다면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너희가 생각하는 평화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볼길 바라.

- 2017년 늦가을 창원도서관에서 우성이가 -

‘우주 호텔’을 읽고

정 한 나 / 한알독서회



‘우주 호텔’은 내가 다니는 한알독서회 하브루타 수업을 통해 알게 되어 읽은 책이다.

반지하 단칸방에 폐지를 주워서 파는 ‘종이할머니’에겐 가족도 없고, 함께 어울릴 친구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메이’라는 아이가 종이할머니에게 다 쓴 스케치북을 가져다 보여 주었다. 그 스케치북을 열자 지금껏 보지 못한 아름다운 우주가 펼쳐져 있었고, 별들 사이엔 우뚝 솟아있는 우주 호텔도 그려져 있었다.

그 일을 계기로 늘 폐지를 줍느라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고 걷던 할머니는 가끔 허리를 펴고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한다. 할머니는 우주 호텔이 저 우주 너머에 있다고 하셨지만, 나는 할머니가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함께 차를 나눠 마시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순간이 바로 우주 호텔을 방문한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의 앞부분은 조금 슬펐다. 가족도 없이, 매일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살아가는 할머니의 모습이 어딘가 쓸쓸해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슬픈 것은 할머니에게 마음을 나눌, 고단한 삶에 위로가 될 친구가 없다는 것이었다.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정을 나눌 친구가 없는 삶은 상상하기가 어렵다. 얼마나 외롭고 재미없는 일상일지...

그래서 ‘메이’가 등장해 할머니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좋았다. 또 일반 사람과 다른 모습(이마에 혹이나 앞을 보기 어려운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 받아 마음에 상처가 있는 다른 할머니와 친구가 되는 모습도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가끔 뉴스에서 ‘종이할머니’처럼 외롭게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다고 본 적이 있다. 홀로 사시다가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나도 쓸쓸한 누군가에게 ‘메이’처럼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모두가 조금씩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 우리 모두가 서로의 우주 호텔이 되면 좋겠다.

힘내라, 사춘기야!!!

-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를 읽고 -

최수인 / 글발독서회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초등학생 티를 벗고 중학교에 대한 설렘과 희망을 가득 품었을 때였다. 새 학교, 교복, 새 가방 그리고 다양한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미친 듯이 심장이 뛰기도 했다. 그러나 중학생에 대한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책 제목이 다소 부정적이었다. 내가 생각하던 중학교와 작가가 생각하는 중학교의 이미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나는 엄청 걱정하기도 했다. 작가는 왜 중학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을까?

중학교에 들어오자마자 스미레는 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알아주는 대학교에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을 비교하는 어머니. 그런 가정에 맞추기 위해 스미레는 무척이나 노력한다.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럭저럭 지냈다. 성적도 어느 정도 나왔다. 중학교 2학년. 스미레는 유일했던 자신의 친구와 멀어지게 되면서 아는 친구가 아무도 없게 된다. 스스로 외롭게 지내다가 자신을 알아잡아보던 아이들과 억지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반에서 제일 잘나가는 그룹에 끼려고 애쓰게 된다. 반항의 상징인 치마 줄이기, 화장, 염색, 그리고 술과 담배까지. 끝없는 노력 끝에 아오이 그룹의 멤버가 된 스미레는 무척이나 기뻐한다. 아오이의 대학생 남자친구, 화려한 화장법들을 동경하던 스미레는 아오이 그룹과 시내에 나가 범죄를 목격한다. 바로 아오이 그룹이 화장품 가게에서 도둑질을 하는 것. 야속하게도 아오이는 스미레에게 화장품을 훔치라고 시킨다. 스미레는 이것을 거절했고, 그 후로 왕따가 된다. 책상과 의자를 남자 화장실에 넣어 두고 퇴학하라는 메시지를 본 스미레는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된다. 끔찍했던 중학교 2학년이 끝나고 스미레는 중학교 3학년이 된다. 마치 1~2학년 때는 잊어버리려는 듯 스미레는 새 친구들을 만나 어울리게 된다.

나는 스미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6학년 반 배정을 받고 난 후, 나와 친한 친구는 6학년 1반에 아무도 없었다. 남자아이들을 제외하고는 같은 반을 해봤던 친구들이 거의 없었고 다른 반으로 뿔뿔이 흩어진 친구들을 찾아가 놀기도 조금 어색했다. 그 친구들은 이미 새 친구들을 사귄 후였기 때문이다. 약 1달 정도 나는 도서관을 다니면서 외로움을 달랠다. 외롭다고 하소연할 사람도, 같이 놀 사람도 없었다. 그때 스미레의 새 친구들처럼 나에게 손을 밀어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남은 11개월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다. 나는 1달 정도 외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스미레는 거의 1년을 혼자 지낸 것이나 다름없다. 1달의 시간도 견디기 어려운데 1년을 버틴 스미레가 대단하다고 생각된다.

나는 중학교 2학년 사춘기를 걸으로는 익어 보이지만 속은 덜 익은 과일이 익어가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걸으로는 어른처럼 성숙하고 다 큰 것 같지만 아직 정신적인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나도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중학교 2학년이 되는데 스미레처럼 우울한 사춘기를 겪지 않고 사춘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아이들과 함께 꿈꾸기 시작한 나

- 글밭 독서회를 맡고 -

박 영 미 / 글밭독서회 강사

어린이 도서실 단골이었던 나는 어느 날 사서 선생님께서부터 중등 독서회를 맡아줄 수 없겠냐는 제의를 받았다. 처음엔 자신이 없어 거절했었다. 아이들 수업을 하고 있었지만 주로 개인 수업이었고 도서관 수업은 단기였기 때문에 1년 동안 꾸준히 이어가야 하는 독서회는 부담스러웠다.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고 괜스레 마음이 쓰였는데, 그 다음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까지 강사를 정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을 정했다. 늦게 결정한 탓에 촉박하게 도서 선정을 끝내고 공고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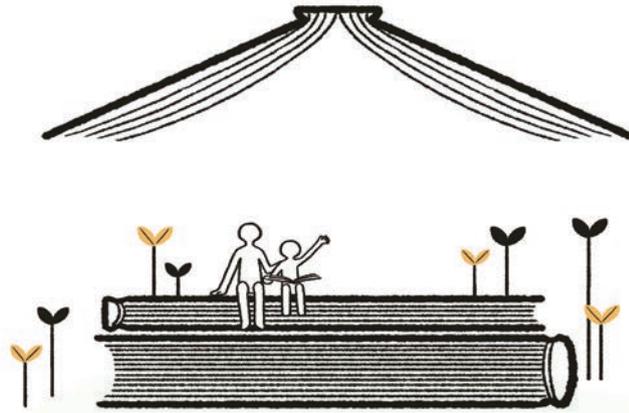
그렇게 나의 첫 독서회가 시작되었다. 2016년 3월이었다.

항상 처음은 어설프고 설레고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다. 독서교육실 문을 열고 아이들이 오기를 기다리던 순간, 나의 심장 박동도 그렇게 빨리 뛰어본 적은 없는 듯 했다. 십여 년을 아이들과 함께 해오면서 익숙하고 무뎠던 내 심장이 그렇게 반응을 시작했다. 사실 중등 독서회가 그렇게 활기찬 분위기는 아니라는 충고에 살짝 긴장한 탓도 있었다. 내심 ‘아이들이 잘 안 따라오면 어찌지’ 하는 불안도 있었다. 어딜 가나 무서운 중딩들이니 걱정은 어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 모르겠다.

하나 둘 아이들이 들어오고 자리에 앉았다. 어색한 아이들도 말없이 나를 뚫어져라 보았다. 순간 ‘어떤 말로 이 썩~한 분위기를 풀지’ 생각했다. MC 유재석 얘기를 했던 것 같다.

“왜 유재석이 국민 MC가 됐을까? 왜 안티가 적을까?”

경청의 힘을 말하고 싶었다. 독서회의 가장 중요한 힘이 경청과 자유로움이 아닐까 한다. 아이들의 얘기를 듣고 나의 중딩 시절과 성인 독서회 참여 경험을 말했고, 친구들이 독서회를 신청한 동기를 물었던 것 같다. 그리고 옆 친구 인터뷰를 시켰다. 독서회 일원이 된 서로를 잘 알고 빨리 친해지면 토론도 더 자유롭고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독서회는 선생님이 아니라 친구들이 주인공이며, 친구들의 힘으로 굴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시간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다. 기존 회원이 절반을 넘었던 올해는 좀 더 색다르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 친구들이 월별로 2명씩 발표자가 되어 선정 도서를 소개하고 자신들의 느낌과 생각을 발표하고 질문을 주고받는다. 즉 이 시간은 발표자가 강연을 펼치는 시간이다. 친구들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선생님과 생각을 나누고 토론을 하는 형식이다. 정해진 형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독서회를 통해 발표의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주고 싶었다. 독서회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얻어 새롭게 꿈꾸기를 희망해 본다.

2년 동안 한결같이 참석해 준 친구들과 부모님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독서회는 1년 동안 꾸준히 참여하는 장기 프로그램이라 계속 참석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다. 사실 강사인 나도 힘든 날이 분명 있다. 하지만 친구들과 한 약속이라 어길 수가 없다. 친구들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할까. 글밭 독서회 친구들은 이미 성실성을 인정 받은 친구들이다. 사계절을 함께 한 친구들 정말 사랑스럽다.

누군가 나에게 “글밭 독서회 어땠어?” 하고 묻는다면

“아이들과 함께 꿈꾸는 시간, 설렘어.” 라고 말하게 되리라.

다음 달도 나는 나들이 가듯 그곳으로 가리라. 벚꽃이 흩날리던, 단풍이 물들었던 그곳으로, 낙엽이 떨어지고 있을 그곳으로 달려가리라. 그곳에 글밭 친구들이 있기에...

2017년 문학기행을 다녀와서

박 영 실 / 섬돌독서회

두 번째 문학기행이었다. 독서회, 글쓰기 등 도서관 이용을 하다 보니 이렇게 좋은 시간도 생긴다. 개인적으로 단풍 구경을 가본 적이 전무하다시피 살아온지라 어떡하든 시간을 내어 즐거운 여행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아침 일찍부터 도서관 앞에 대기하고 있던 버스에 오르니 같은 동아리인 섬돌 회원은 물론이고 2017년 하반기를 같이 공부한 글쓰기 회원들도 간간히 보여 반가웠다. 도서관에서 일찍 집을 나선 회원들을 배려하여 아침 대용으로 마련해주신 떡과 음료 에다 독서회원들이 주는 찌계란, 군고구마, 초콜릿, 따뜻한 커피 등으로 청송 가는 길 내내 몸은 살찌고 마음은 행복하게 부풀어 올랐다.

가을이 한복판인 산등성 위엔 울긋불긋한 배경이 우리를 그 날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는 거 같았다. 경북 청송을 향해 질주하는 버스 안에서 옆자리 독서회원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보니 짧지 않은 3시간여의 여정도 어느 새 지나가고 객주문학관에 당도했다.

문학관에 오면서 생각해보니 작가의 저명한 이름만 알고 있지 특별히 읽은 기억이 나는 책이 없어 못내 아쉽다. 미디어에서 간간히 접었을 때의 패기만만한 미남이셨던 김주영 작가만을 보아오다가 팔순에 가까운 노작가를 직접 보니 실감이 나지 않고 어색한 느낌도 들었지만 김주영 작가 특유의 농담과 친밀감으로 방문객들의 긴장을 이내 풀어버렸다.

작가와 함께 모두 주먹을 불끈 쥔 유쾌하고도 간단한 단체사진을 찍고 작가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이 듬뿍 담긴 객주문학관 전문해설사의 자세하고도 친절한 해설을 귀담아들으려고 애썼지만 단풍철과 겹친 휴일이라 방문객이 너무 많은 북새통속에서 들었던 것보다 농친 부분이 더 많아 아쉬움이 크다. 객주의 뜻이 주막이 아니라 지금의 상인 개념인 보부상이라는 막연하게 짐작했던 오류도 깨달았고 그 시대 민초들의 재밌는 생활상 등도 모형으로 제작해 놓아서 방문객들의 흥미를 돋웠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디지털화되어있는 관람기구도 잘 마련되어 있어 어린이들과의 동반 관람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듯하다.

또한 작년에 갔던 전남 순천문학관에 비하면 학교터와 건물을 문학관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어 시설도 훨씬 크고 훌륭할 뿐만 아니라 청송군민의 자랑으로 행정적인 지원도 많이 받는 듯 보였다. 절필과 단명으로 많은 작품을 남기지 못한 두 작가보다 훨씬 오랜 기간의 작품활동으로 많은 작품을 남긴 영향도 있으리라고 생각해 본다.

문학관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작가의 "잘가요 엄마" 와 "홍어" 두 권을 샀다. 작가 서명을 받고 싶은 용열한 욕심이 생겨났지만 노작가는 부재중이었다.

심부자집이라는 한식집에서 점심을 먹고 다음 목적지인 송소고택을 가기 전 우리는 마을 전체가 아담하게 잘 정비되어 있는 청송 시골마을에서 가벼운 산보를 하면서 가을을 마음껏 누렸다. 담장에 기대어 여학생처럼 천진한 포즈로 사진도 찍고 대문이 열려있는 시골집 김장풍경도 대청마루에 널린 무척시레기도 보면서 청정한 햇살 아래 편안한 익숙함을 느꼈다.

오후 2시경 조선 영조 때부터 경주 최부자와 더불어 영남권 최고의 부자로 무려 250년간 만석의 부를 누렸다는 송소고택 방문이 있었다. 조선 중기 부유층의 건축이나 혼인, 교육 등에 대해 문화해설사의 유쾌한 해설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인증사진을 마지막으로 고택 구경을 1시간 반 정도 하고 3시 반경 창원으로 출발했다.

창원으로 오는 버스창 밖에는 헬리오스의 서쪽 궁전으로 떨어지는 주홍빛 일몰이 우리의 여행이 끝나가는 아쉬움과 겹쳐 너무나도 처연하게 예뻐다.

집에 돌아와서 문학관에서 사온 책을 펼치니 "2017 가을 김주영"이란 작가의 서명이 선명하게 되어 있었다. "잘가요 엄마"는 군대 간 아들에게 면회 때 전해주고 난 홍어를 펼쳤다.

책을 읽어 나갈수록 단어 하나를 건져 올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다던 작가의 마음이 내게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내가 감히 말하기 외람되어 부끄럽지만 글 속에 들어있는 문장과 단어들이 전에 없이 날카롭게 와 박힌다.

이 가을을 이렇게 보내게 돼서 다행이다.

숨결이 바람 될 때 그리고 어머니

김 미 영 / 소나기독서회

"엄마, 뭐해요?"라고 물어보면 전화기 저편에서는 어김없이 끄끄 거리며 앓으시는 소리와 한숨 섞인 답이 돌아온다.

"내가 뭐하긴... 할 일이 있나....."

올해로 여든 여섯의 나이가 되신 친정 어머니는 3년째 림프암 투병중이다. 병의 특성상 재발이 잦은 탓에 늘 약과 씨름을 하신다.

암은 평생을 홀로 세 아이를 키워낸 강한 한 어머니를 한순간 약하디 약한 인간으로, 투정과 자기에 가득한 아이로 만들었다.

이런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은 나를 당황케 만들었고, 예전의 따뜻하고 인자하던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만들었다. 도대체 어려움 속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시던 내 어머니는 어디로 가셨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득 안고 다니니, 늘 친정에 가도 마음이 무거울 뿐이었다.

그러던 중 소나기 독서모임에서 "폴 칼라니티의 숨결이 바람 될 때"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미국에서 뛰어난 의사로 활동하던 중 서른여섯의 나이에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삶을 마칠 때까지 죽음을 마주하는 그의 이야기였다.

폴은 암과 싸우는 순간에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게 사는 삶인지 항상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다.

결국엔 의사로서 자신의 큰 꿈은 저 버려야 했지만, 그는 또 다시 자신이 좋아하는 문학을 찾아 자신의 이야기를 텅텅하게 써 내려갔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자신의 능력이 뛰어났던 만큼 하고 싶은 일도 많았을 텐데,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계획해 두었던 일과 희망, 꿈, 야망은 모두 어찌하였을까?

책을 읽어 내려가면 갈수록 그의 애잔한 아픔이 느껴졌다.

그는 담담히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자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과의 아픔과 전쟁을 치렀을까?

인생의 온갖 굴곡은 다 겪었다고 자부하시는 내 어머니도 암 앞에서는 자신을 잃어버리셨는데... 그는 어찌 가능했을까?

폴을 보면서 나는 또 다른 모습의 어머니를 조금씩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있는 내가 보였다. 어머니, 당신의 존재만으로 감사함을 오늘도 느낀다.

Changwon Public Library

창원도서관
종합문예지

해돋이

참여 글마당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곳, 창원도서관 · 이민경(유아자료실 이용자)
우리 가족의 쉼터, 창원도서관 · 김수연(어린이자료실 이용자)
글쓰기, 이제는 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 여정옥(평생학습프로그램 강사)
경남독서한마당 '책 읽는 학교, 행복한 우리' · 김지혜(가고파초등학교 사서교사)

2017. 길 위의 인문학 - 라이프 텔링! 삶을 쓰다

삶의 여유 찾기 · 정순태(길 위의 인문학 참여자)
최고의 유산 · 한인숙(길 위의 인문학 참여자)
효도 관광 · 박영실(길 위의 인문학 참여자)
초심은 길을 잘 읽는다 · 박현식(길 위의 인문학 참여자)
복숭아 인생 · 윤한나(길 위의 인문학 참여자)
그녀의 사진 · 이영란(길 위의 인문학 참여자)
어머님의 결혼 · 김명옥(길 위의 인문학 참여자)

2017. 창원도서관 독서진흥행사

콩콩 독서계단 밟기 - 아이들의 생각 나무
창원도서관은 네모다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곳, 창원도서관

이 민 경 / 유아자료실 이용자

퇴근길에 전화가 한통 걸려왔다.

창원도서관 유아자료실이였다.

1년에 한 번씩 도서관 이용자와 직원들이 펴내는 문집이 있는데 거기에 글을 써 보면 어떻겠냐고 물으셨다.

생각도 안하고 “저 글 못써요~~~;;” 했다.

근데 사서선생님께서 어려운 게 아니라며, 이전 문집도 보여주시고 하셔서 ‘나도 해볼까’ 하는 용기를 얻게 돼 쓰게 됐다.

창원도서관을 알고는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용하게 된 것은 이번 봄부터이다.

심지어 나는 경원중학교 출신인데 그 당시 시립도서관을 이용했지, 창원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았었다. 그냥 ‘기계공고에 붙어 있는 건물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멀리 있는 진해장난감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의창, 성산도서관을 주로 이용했고 창원도서관은 생각도 못했었는데 아이들 체육수업을 신청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용을 하기 시작했다. 마치면 날도 더운데 도서관에서 시원하게 책이나 볼까 하고 유아자료실을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었다.

조용한 곳에 위치해 공기도 좋고, 주말 행사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크게 복잡거리지 않아서 더더욱 좋았다.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숨겨진 보물 같은 도서관이었다. 왜 이제서야 알게 됐을까 하고 안타까울 정도였다.

콩콩 독서계단밟기를 통해서 하루 두 권 책을 읽고 이어지는 독후활동도 좋았고, 아이들 유치원 방학에 맞춰 오전 시간에 사서 선생님들께서 돌아가면서 직접 해주신 그림책 교실도 참 좋았다. 그림책 교실에 참여하기 위해 아침밥 먹이고 간식 도시락까지 싸서 종일 놀다 온 적도 많았다. 여자아이들이다보니 책 보며 그림 그리며 하루 종일을 도서관에서 보내는 것이 즐겁다고 했다. 처음엔 건희가 글을 잘 몰라 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책도 스스로 읽고 그림 그리며 시간을 보내니 유치원 마치고 잠깐 한 시간 정도 들러 책을 보러 가는 시간은 나에게도 휴식 같은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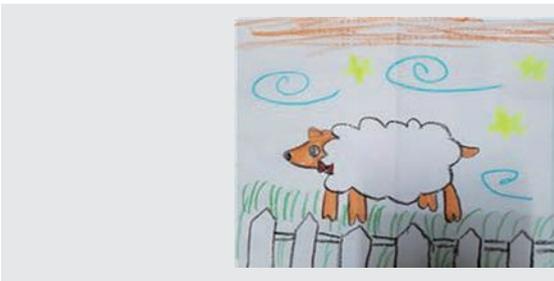
유아자료실 사서 선생님 추천으로 ‘책 읽는 엄마 책과 크는 아이’라는 유아 책놀이 겸 독서지도수업도 듣기도

했다. 평일 오후에 아이들은 타요버스에서 독후활동을 하고 우리 엄마들은 그 시간 동안 유아자료실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정말 기억에 남는 것도 많고 재미있고 실생활에 적용하게 된 것도 많아 정말 유용했던 수업이었다. 다시 기회가 된다면 꼭 듣고 싶은 수업이다.

평일 오전 시간을 이용해 어린이 책 깊이 읽기와, 하브루타 수업을 들었는데 이것도 둘 다 정말 좋았다. 어린이 책 깊이 읽기를 통해 동화책이 아이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어른들이 봐도 재미있고, 느낄 점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하브루타 수업은 아직도 진행 중인데 김혜경 선생님 저자 직강으로 더욱이 영광이다. 아이들을 대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대할 수 있고, 나도 많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나 스스로 깨닫고, 시나브로 변해갈 거라 믿고 있다.

나는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7세 여아 쌍둥이 건희, 강희를 키우고 있다. 이란성이라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은 물론 성향도 다르다. 비슷한 듯 보이지만 다르다. 건희는 7세 초반까지도 한글에 관심이 별로 없고, 강희가 워낙 잘하다 보니 자기는 못한다는 마음에 한글 공부를 더 등한시켰는데 그래도 기다려줬다. 다른 사교육은 전혀 하지 않고 책임기를 해주며 아이를 격려해주고, 편지 주고받기를 많이 하며 미흡하지만 편지 한 통을 완성해 써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며 기다렸더니, 내년 초등학교 적응 걱정은 덜게 되었다. 사실 도서관 다니면서 얻게 된 가장 큰 결과물이기도 하다.

남편도 나도 둘 다 사교육 시장에 종사하고 있다. 그래서 사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더더욱 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시키지 않았다. 가깝고 체험하기 좋은 곳을 찾아 같은 곳을 여러 번 데리고 다녔다. 익숙함 속에서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았다. 학습을 강요하지 않았더니,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게 됐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공부에 찌들어 갈 아이들을 생각하면 학습을 강요하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다. 바쁘게 살지 말고 여유를 부리며 책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싶기에 앞으로도 창원도서관은 우리 가족의 좋은 휴식처가 될 것 같다.



〈그림쟁이강희가그린양〉



〈건희가그린어항속물고기〉

우리 가족의 심터, 창원도서관

김수연 / 어린이자료실 이용자

저는 연년생 초등학생 두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창원도서관을 알게 되고 자주 방문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또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창원도서관과의 인연은 큰 아이, 현준이가 방학 때 갈만한 곳이 없어서 마땅한 곳을 찾던 중 집 주변의 도서관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장난꾸러기에 남자아이라 시끄럽게 떠들거나 해서 도서관에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는데 어린이자료실 사서선생님들께서 친절히 설명도 잘해주시고 보살펴주셔서 저희 아이가 한 달 동안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인연을 시작으로 지금 우리 아이는 책을 좋아하고 즐겨 읽는 아이가 된 것 같습니다.

사서선생님의 역할은 책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일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본 어린이자료실 선생님들은 도서관에 방문하는 많은 부모님에게 도서관의 유용한 정보나 궁금한 점을 알려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고마운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지금은 우리 아이 못지않게 저도 어느 누구보다 도서관을 즐겨 이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원도서관은 어린이 강좌, 이벤트, 행사, 강연 등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창원도서관에서 하는 행사는 거의 빠지지 않고 참여하다 보니 이제는 아이들과 창원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과로 자리 잡았습니다.

몇 달 전 도서관에서 도전! 골든벨 행사가 있어 참여했습니다. 선정도서를 사서 가족이 모두 돌려 읽고 기출문제까지 만들어 풀며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등 안에 들지 못해 아이들이 아쉬워했지만 가족이 함께 ‘책’을 매개로 이야기 나누고 공동의 목표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경험이 지금까지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창원도서관을 방문하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이 책이랑 많이 친해졌다는 것입니다. 독서 감상문이나 글짓기 등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어색함을 느끼지 않게 되고, 또 생각지도 못하게 방학 때는 다독상이나 글짓기상을 받게 되는 좋은 일까지 생겼습니다.

말하기나 창의력도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 풍부해진 모습을 보면서 엄마로서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2년 동안 매번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창원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게 해주신 어린이자료실 사서선생님들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금도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엄마이지만 창원도서관을 다니면서 조금 더 현명하고 똑똑한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준이가 도서관에 다니며 쓴 동시〉

도서관

권현준 지음

문을 열어 도서관에
들어가면 책들이 소리친다.

“나 읽어줘.” “나 읽어줘.”
큰 목소리가 펑펑 터진다.

그중에 특히 우렁찬 녀석은
광광거린다.

하지만 책을 읽을 때면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책들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요정이다.

글쓰기, 이제는 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여 정 옥 / 평생학습프로그램 강사

도서관은 많은 사람들이 책과 함께 하는 공간이다. 그곳에서 어른들도 아이들도 각자의 재미와 즐거움 그리고 많은 책을 읽는 곳이다. 책과 함께 창원도서관에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또 하나의 묘미이다.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 어른과 아이들이 배우고 싶었던 프로그램을 찾아 또 다른 즐거움을 얻기 위해 도서관으로 온다. 배움을 가르치는 강사로 나 또한 기쁨과 보람을 흠뻑 느끼고 있다. 나는 초등학생 저학년의 ‘글쓰기가 좋아’와 고학년 ‘신나는 글쓰기’ 프로그램 강사로 아이들과 함께 거의 1년을 보냈다.

‘글쓰기’란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책을 많이 읽으면 글쓰기가 저절로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다. 책은 글쓰기를 할 때 배경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어떻게 써야하는지는 글쓰기 수업을 통해 기본을 배우고 그 기본을 바탕으로 자주 글쓰기를 해야 한다. 어른들에게도 글쓰기를 해보라고 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데 초등학생이야말로 오죽하겠나 싶다. 그래서 1년간 글쓰기 수업을 통해 ‘아! 글쓰기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글쓰기는 참 쉽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나의 수업목표였다.

상반기 글쓰기 수업을 시작했을 때 글쓰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어리둥절해 하는 아이들이 많았고 수업 자체를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많았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일기로 수업을 하면서 다양한 갈래별 글쓰기를 했다. 예를 들면 그림일기, 동시일기, 관찰일기, 독후일기, 편지일기, 여행일기, 상상일기를 쓰면서 글쓰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했다. 하반기에는 다양한 갈래의 독서감상문 쓰기를 하면서 독서감상문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했다. 고학년은 글의 갈래별 글쓰기 즉 일기, 생활문, 동시, 독서감상문, 기행문, 편지, 설명문, 논설문을 모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워야 하듯이 글을 쓰려면 글의 종류에 따른 글쓰기 방법을 알아야 글을 잘 쓸 수 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는 눈치였지만 시간이 점점 갈수록 글쓰기에 자신감을 가지는 눈빛을 보였다. 한 줄 써놓고 나를 기다리던 아이들이 나의 지도 없이도 스스로 써 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 뭉클해짐을 느꼈다.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 수업을 했던 아이들은 확실히 달랐다. 무엇이든 꾸준함을 보여 준 증거였다. 나의 도움 없이도 거뜬히 글을 한편 쓰는 모습은 바로 글쓰기의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글쓰기는 자신의 머리에 있는 생각과 가슴에 들어있는 마음을 잘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 자꾸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말로, 글로 표현해야 하는 연습을 하는데 수업 초기에는 침묵하고 있던 아이들도 서서히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모습들을 기쁨으로 지켜봤다. 약간의 도움을 주려고 다가가자

“저 혼자 해 볼게요.”

“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며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벌써 하반기 프로그램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기간 동안 경험한 것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업을 하기 전에는 글쓰기가 자신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면 이제는 아주 친숙한 글쓰기로 다가와 있을 것이다.



경남독서한마당 '책 읽는 학교, 행복한 우리'

김 지 혜 / 가고파초등학교 사서교사

도서관에 온 학생들 중 도서관의 수많은 책을 앞에 두고도 입을 책을 고르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바쁘지 않으면 각자에게 맞는 책을 추천하고 찾아주려 노력하지만, 학생들이 많이 붐비는 시간에는 그럴 여유가 없게 된다. 그런 아이들에게 바로 권해 줄 수 있는 책이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이다.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는 출판되는 많은 도서 중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하여 문학뿐만 아니라 환경, 역사, 경제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여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에 맞게 구성된 목록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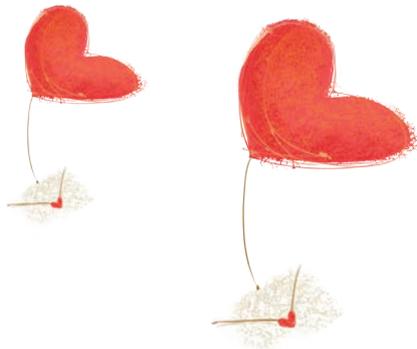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경남독서한마당, 사서교사로 근무한지 9여 년 동안 매해 경남독서한마당을 실시하였지만, 본교의 학생들처럼 관심이 뜨겁고 참여율도 높았던 적은 드물었다. 본교 학생들은 경남독서한마당에 선정된 도서라고 말하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기분 좋게 책을 대출해갔다. 대출 기간이 끝나고 책을 반납하러 올 때는 다음 입을 친구가 따라와 바로 대출해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자신이 읽은 책을 친구에게 자연스레 추천하고, 추천 받은 친구는 책을 읽은 후 친구와 느낌을 공유한다.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친구들의 모습은 반짝반짝 빛이 난다. 그래서 본교는 학급에서도 손쉽게 책을 읽고 서로의 느낌을 공유하도록 각 학급에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를 구입하여 배부하였다. 공모전 참여를 위한 독서가 아닌 학생들 스스로 좋은 책을 읽고 느낌을 공유하여 책 읽는 학교를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학생들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독서공모전 관련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과 경험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싶었다. 선정도서의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각 개별 학교에서 작가를 초청하는 일은 상당히 번거롭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다. 그런 찰나에 독서한마당 독서진흥행사를 지원해 준다는 공문이 내려왔고, 작년 독서공모전 참여도가 높은 학교라서 그런지 희망하는 날짜에 희망하는 작가님을 초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모든 학생들이 작가와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 좋았겠지만, 본교는 전교생 수가 많아 6학년을 대상으로 '바람의 맛' 김유경 작가와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바람의 맛’ 김유경 작가와의 만남은 학생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작가는 글만 쓰는 지루한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자유분방하게 여행을 다니며 그곳에서 글을 쓰는 영감을 얻고, 다양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해준 뜻깊은 시간이었다. 또한 3년 동안 ‘바람의 맛’그림책을 그리고 만드는 과정이 담긴 이야기와 바람이 만들어주는 우리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책 한 권이 만들어지기까지 작가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자됨을 배울 수 있었다.

경남독서한마당은 독서감상화, 독서신문, 독서만화, 독서감상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형식으로 책의 감상을 표현할 수 있다. 본교의 학생들은 여름방학 과제로 내어준 독서공모전 출품작에 전교생 모두가 제출하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많은 학생들이 상을 받으며 학교가 단체상을 받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물론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아서이기도 했지만 적극 지원해주신 교장, 교감선생님, 그리고 각 반 담임 선생님들의 아침 독서 활동 지도와 가고파 명품 교육 실천장을 통한 꾸준한 독서 및 독후활동의 지도로 이뤄진 성과인 것 같다.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사실 이 말은 거짓말이다. 마음만 있으면 아주 잠깐 시간이 비는 사이를 이용해서 얼마간이라도 읽을 수 있다. 아무리 바빠도 식사시간에는 밥을 먹고, 자야할 시간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독서도 우리의 하루에서 빠질 수 없는 일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 경남독서한마당과 경남 독서문화 축제처럼 지역사회와 학교가 서로 협력하며 꾸준히 노력해야 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창원도서관 시행으로 진행된
“2017년 도서관「길 위의 인문학」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의 결과물 중 일부를 모았습니다.

삶의 여유 찾기

정 순 태 / 길 위의 인문학 참여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여유”의 사전적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물질적, 공간적, 시간적 넉넉하고 남음이 있음”과 다른 하나는 “성급하지 않고 느그롭게 생각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통상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말은 시간적인 것과 경계적인 것에 대해 많이 사용한다. 그 여유의 반어적인 말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그렇게 생활한다. 우리 모두는 바쁜 삶을 살아가고, 그 모두에는 나도 포함된다. 그런 “바쁜 삶”의 이유나 목적인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사느냐고 물어보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간은 다른 이야기이지만 어떤 사람이 어린이들을 상대로 이런 놀이를 해보았다. 잘 익은 옥수수밭에서 각 골마다 줄을 세운 후 가장 좋은 옥수수 딱 하나만 골라 바구니에 담도록 하였다. 게임의 조건은 “지나온 길을 되돌아 갈 수 없으며, 이미 딴 옥수수는 다른 옥수수로 바꿀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진짜 마음에 드는 옥수수 딱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이었다. 결과는 어떠한 것 같은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것 같은가? 이 놀이의 결과는 많은 아이들의 바구니가 비어 있었고, 소수의 아이들의 바구니에는 아주 작은 것만 들어있었고 작은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남보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욕심 때문이었다. 우리는 더 좋은 것 하나를 위해 현재의 좋은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생각한 좋은 것보다는, 남보다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런 욕심이 나를 여유가 없도록 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도 해본다.

오늘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유를 즐긴 이야기이다. 요즘은 매주 수요일 10시는 창원도서관 주관 <라이프 텔링! 삶을 쓰다> 수강 시간이다. 통상적으로는 8시쯤 집을 나와 한 시간 반 정도 운동하고 허겁지겁 설치면서 교통 상황에 따라 5~10분 전쯤 강의실 도착이다. 오늘은 8시 50분쯤 집을 나섰다. 평상시보다 이른 시간에 도서관에 도착하였다. 여유 시간을 열람실에서 신문 보기보다는 운동 겸해서 평상시 보아둔 앞 공원길을 산책키로 하였다.

그동안 여러 번 지나다녔고, 별 관심도 없었던 곳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놀라움이었다. 테니스장의 힘찬 선수들의 고함소리를 뒤로 하고 공원의 포장길 대신 나무 사이의 잔디밭을 걸었다. 공원은 여러 나무, 꽃들과 몇 가지 조형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강의 시작 전 둘러보기에 넉넉한 넓이었다. 공원 이름은 올림픽 공원.

올봄부터 시작한 생태관련 공부를 하면서 식물에 관심을 가지고 잎이나 꽃을 관찰하고 도감이나 웹을 통해 이름을 찾아보고 익히고 하다 보니 단지 걷는 운동과 다른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고 관찰하는 것은 빠르게 걸으면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평상시보다 좀 더 천천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인지 이런 여유 시간을 열람실보다 공원으로 인도한 것 같다.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이다. 오늘은 여유를 가지고 평상시 와보지 못하였던 공원을 산책하고, 새로운 꽃을 보고 즐거워하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왜일까? 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일상으로 하고 있는 일이나 행동 중 한두 번쯤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상의 생활 중 한두 번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찾아서 하지 않는 것도 여유를 찾는 방법 중 하나일 것 같다. 우리가 바쁘고 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나를 위한 여유를 찾는 쉬운 방법을 잊고 있는 것 아닌가?

다시 생각해보면 일 자체, 삶 자체에서 나를 위한 여유, 짊어 찾는 훈련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제는 우리 모두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한 여유”를 찾을 수 있을까? 각자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성급하지 않고 느그롭게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는 가질 수 있길 바라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최고의 유산

한 인 숙 / 길 위의 인문학 참여자

카톡이 떴다. 환자복을 입은 침상에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이다. 깜짝 놀라 전화해보니 전날 저녁에 부엌 들어 가시다가 미끄러지셨단다. 팔이 부러져서 김스 8주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엄마는 3남 1녀 중 막내로 곱게 자라서 칠 남매의 맏이인 아버지를 중매로 만나 결혼하셨다. 고생이 뭇지도 모르는 젊은 처자가 중매쟁이 할머니 말에 속아서 가난한 시골 장남에게 시집을 오신 것이다. 결혼을 한지 그 다음해 아버지는 군대에 들어가셨고 제대하기 몇 달 남긴 채 6·25전쟁이 발발하여 또 삼 년을 더 기다려셔야 했다. 아버지 계시지 않는 살림은 당연히 기울었고 엄마의 고생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젊은 청춘을 살림 일구기로 다 보내셨고 이제는 편히 쉴 때도 됐는데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는 듯하다. 어느새 아버지는 팔십 육세, 엄마는 팔십 사세의 백발 노인이 되셨다.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과 지팡이 없이는 거동이 불편하시게 되었다. 그날도 도우미 아주머니가 가시고 물드시러 가시는 길에 벌어진 일이었다 한다. 어느 집이든 노인들이 쓰러지시면 자식들이 이유가 많다. 우리 오 형제는 다 자기 사업들이 있다. 서로에게 미울 만큼 불효자도 아니다. 다들 바쁠 뿐이다. 전화벨이 울린다.

“요즘 바쁘니?”

오빠의 목소리다.

오빠가 하고픈 말은 못하고 나의 안부만 묻는다.

“엄마 걱정되어 전화하셨지. 걱정 마. 내가 올라갈게.”

“엄마는 날 제일 좋아하니 내가 제일 편하실 거야.”

“걱정 마.”

하고 큰소리를 치고 전화를 끊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낮에는 계셔서 나는 따로 할 것은 크게 없었다. 오전에 목욕 씻겨 드리고 밤중에 엄마의 잠 자리만 보살피면 되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한 두 주가 지나니 힘들고 버거워지기 시작했다. 역시나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소리가 맞았다. 내 모습에 짜증과 투정이 나오기 시작했다. 형제들도 내 눈치 보기 바쁘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지나간 날들의 삶의 흔적과 아쉬움, 병만 남아있는 늙고 아픈 몸, 자식들도 몰라 주는 세월의 설움을 매일 눈물로 다 쏟아내신다. 엄마가 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리고 야윈 한 노인인 것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애착이 엄마를 더 아프게 한다. 남의 손을 빌려야 머리를 감고, 남의 손으로 대소변을 해결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할까? 매일 매일을 아픔으로 시작하고 이겨내시는 엄마를 보면서 너무 불쌍하고 가엾다는 생각에 잠깐이라도 힘겨워하고 짜증내는 모습을 회개했다. 엄마는 날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다. 오늘도 재미있게 들으며 산책을 했다. 옆에 누군가 함께 있을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나듯이 엄마에게 그런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 같다. 세월이 약이라고 하듯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뼈가 붙고 깁스를 풀었다. 나는 창원 집으로 내려왔고 열심을 내어 매일 매일 운동을 한다. 부모의 건강도 유산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우리 부모가 건강하신 것이 나에게 최고의 유산이듯 나도 우리 딸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주고 싶다.



효도 관광

박 영 실 / 길 위의 인문학 참여자

지난주에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딸이랑 둘이 떠났는데 세상 이보다 더 좋은 여행이 있을 까 싶게 심신에 휴식과 만족을 줬다. 처음 계획을 세울 때부터 모든 일정을 미리 알아보고 예약하는 골치 아픈 문제들을 알아서 척척 해주니 출발도 하기 전부터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효도관광이구나 싶었다.

딸이랑 단둘이서만 떠난 여행이니 동행자의 취향을 배려할 필요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눈치를 볼 필요도 무슨 음식을 먹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 정신적 스트레스도 없었다. 도착 첫 날 제주는 뜨거운 열기에 아스팔트 바닥에 계란을 구워도 될 정도로 더웠지만,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무더위 한가운데서 우린 제주 로컬음식 삼합을 맛보고 바로 호텔에 가서 여장을 풀었다. 딸과 호텔의 야외수영장에서 제주의 분홍빛 아름다운 일몰과 함께 출발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디제이가 틀어주는 빠른 댄스음악에 맞춰 몇 잔의 생맥주로 기분이 살짝 좋아진 상태로 벤치에 앉아 흔들흔들 거리는 기분은 20년 전 나로 돌아간 듯 기분이 좋았다. 알코올로 알뜰뜰해진 분위기를 무시할 순 없다. 음악과 알코올이 있는 여행지에서의 야외수영장 칵테일 파티는 이번 효도관광이 기획한 최고의 선물이었다. 일상에 찌들어있던 마음에 한 줄기 구원 같은 일이었다. 남편과 아들이 같이 왔다면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다.

전날의 취기로 느지막이 일어난 우리는 조식을 먹고 서귀포에 있는 재래시장인 올레시장을 대충 구경하고 흑돼지구이로 허기진 위장을 달랬다. 올레시장과 근거리에 있는 이중섭 거리를 갔다. 이중섭과 일본인 아내의 편지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미술관도 보고 생가에 들러 기념사진도 찍었다. 근처에 있는 공방 이곳저곳에 들어



가서 이중섭 화가의 그림을 아이템으로 만든 예쁜 책갈피도 여러 개 사고 마음에 드는 작은 손거울도 하나 구입했다. 이 또한 하릴없이 여기저기 어슬렁대는 것을 질색하는 남편과 왔다면 할 수 없는 호사였다.

3일째는 영상 전시회인 반 고흐 인사이드를 관람하러 갔다. 서로가 알고 있는 고흐에 대한 짧디 짧은 지식을 뽐내면서 웃곤 했다. 주상절리, 애월, 지드래곤이 운영하는 카페를 돌아본 후 일상으로 복귀했다.

모든 일정을 미리 정하고 떠나지 않았기에 더 재미있고 자유로웠다. 다행히 딸과 나는 비슷한 취향들이 많아 부딪칠 일이 하나도 생기지 않아서 더 좋았다. 남편과 공감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을 공감해주고, 공유해주고 세상사 누군가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을 공감해주고, 공유해주고 세상사 누군가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 사연도 척척 해결해 준다. 진심으로 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 이런 멋진 여행을 하게 해주어서….

나에게도 딸에게도 인생 여정은 늘 만만치 않게 다가올 것이다. 같은 여자로서 아내와 어머니를 같이 겪을 사람으로서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공유해야 할 것이다. 모든 부모는 앞선 사람으로서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공유해야 할 것이다. 모든 부모는 앞선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됴됨이를 보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나 역시 내 딸에게 사람으로 여자로 잘 사는 법에 대해 늘 대화하고 고민을 나눈다.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연애 상담, 진로 상담 등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더 가까워짐을 느낀다. 지금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현명한 엄마가 되어 그 아이의 바람직한 길잡이 되는 것이 내가 딸을 사랑하는 방법일 것이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효도관광을 기다린다.

초심은 길을 잘 잃는다

박 현 식 / 길 위의 인문학 참여자

초심은 글 그대로 처음 먹은 마음이다. 덧붙인다면 어떤 일을 하기로 작정하고 각오를 가다듬은 그 마음을 두고 이른다. 그러므로 초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초심을 잃거나 스스로 버린 나머지 패가망신하거나 권좌에서 쫓겨나거나 심지어는 목숨도 잃고 나라까지 망하게 한 사례도 흔하게 있었기에 일일이 사례를 나열하지 않아도 능히 알 것이다. 하여 그 중요성 때문에 예로부터 초심불망 마부작침(初心不忘 磨斧作針), 초지일관(初志一貫), 초심을 잃지 말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등의 성어나 격언들을 예쁜 글씨로 가정이나 직장에 걸어두고 삶이나 일의 지표로 삼기도 한다. 이토록 초심을 잃지 않고 뜻한 바를 이루고자 함이나 이는 곧 초심은 가벼운 물건처럼 잊어버리기 쉽고 끝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렇게 잘 잃어버리거나 지켜지지 않는 초심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음을 일으키기 전에 그 일의 목적성이 반듯한지를 알아야 하며 반드시 자신의 가치관이거나 철학에 부합되는 일인지를 확신해야 된다. 더불어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확보하여야 하며, 일의 환경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조성되기도 하고 돌발 현상이 날 수 있으므로 계획된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환경을 조성한 후에 비로소 마음을 일으켜야 흔들림이 없이 초심을 이어가기 용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실수를 하는 동물이기에 실수가 곧 실패가 아니므로 실수를 인정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에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 말아야 한다.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자신의 일을 즐겨야 하며 그 즐길 속에서 행복감을 얻어야 초심이 기울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뜻한 바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 성취감이야말로 존재의 이유이며 삶의 의미인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 마음먹은 그 마음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며, 초심이라는 것은 쉽게 길을 잃거나 주인으로부터 버려지기 쉬운 것이기에 깨어있는 동안에는 쉽 없이 쟁겨야 할 그 무엇이다.

이쯤 해서 여태껏 내 초심은 어떠한지를 초심의 궤도를 추적해보니 내 중심에서 남서북동과 위아래로 무슨 자기장에 이끌리듯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기를 반복하는 모습이였다. 그 모습은 마치 원자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운동하는 전자와도 같은 형상을 닮았기에 ‘나’라는 원자의 자기장이 일정하지 못하여 ‘초심’이라는 전자의 궤도가 불규칙하였음을 알았으니 내가 나에게 씩씩한 마음 금하지 못한다.

복숭아 인생

윤 한 나 / 길 위의 인문학 참여자

나는 바닥에 굴러 떨어진 복숭아를 본다. 그것이 복숭아인지 자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복숭아 같기도 하고 자두 같기도 하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다가 무심히 고개를 돌렸다. 고개를 돌린 시점과 그것이 바닥에 굴러 떨어진 시점이 우연히 맞아 떨어졌다. 그때부터 녀석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

색깔은 노란색과 연두색이 뒤섞인 밝은 풀빛이 난다. 노란 계열에 더 가까운 것 같다. 크기는 대략 테니스공만 하다. 나의 주먹보다는 작다. 중간에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굴곡이 져있다. 완전한 구 모양은 아니고 타원형도 아니다. 크기나 색깔로 보아 자두보다는 크고 불그스름한 색이 아니므로 복숭아일 거라고 짐작한다.

어디에서 굴러 떨어진 건지 정확히 모르겠다. 고개를 돌렸을 때 내가 앉아있는 좌석보다 더 뒤쪽에서 굴러왔기 때문이다. 돌멩이처럼 아주 단단한 재질은 아니므로 사람들 발에 부딪쳐도 큰 피해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기사님이 운행 중인데 제자리에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오직 그 녀석뿐이므로 약간은 염려스러운 시선으로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뒤로 굴러가는 녀석을 계속해서 눈으로 쫓아가다 몸을 반쯤 돌이켰을 때였다. 덩석 어떤 손이 녀석을 집어 올렸다! 열 살쯤 되는 꼬마의 손이었다. 주인이 있는 복숭아였나 보다. 녀석은 손에 잡힌 채로 검은 비닐봉지 안에 쏘옥 담긴다.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녀석은 있던 곳으로 무사히 돌아갔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본래의 자리로 알아서 돌아간 복숭아가 신기해서 피식 웃음이 났다. 그러면서 복숭아를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 집으로 가는 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 우연히 눈길을 끈 복숭아. 거기에서 지친 내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줄 메시지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아도 이리저리 구르고 치이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기특한 복숭아. 지금은 이렇게 고단해도 언젠가는 편안하고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나만의 자리에서 마음껏 쉼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

오늘도 어김없이 해가 떴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떠오를 것이다. 아침이 되면 변함없이 떠오르는 해처럼 지속되는 인생,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다. 인생은 어려움도 안겨 주지만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주는 것이 아닐까? 우여곡절 끝에 제자리로 무사히 돌아간 복숭아처럼 내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힘내자, 내 인생!”

그녀의 사진

이영란 / 길 위의 인문학 참여자

그녀의 사진을 향해 한숨 멈추고 바라본다. 이력을 드러내지 않은 수만 통의 필름이 발견 되었다. 비비안 마이어 (1926-2009)가 찍어놓은 필름이었다. 보모를 직업으로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던 그녀의 필름이 발견되었다. 보모의 삶 뒤편에서 인화되지 않았던 비밀스러운 사진가의 시선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거리에서 만난 사진가의 사진에서 거울인 듯 익숙한 시선에 한숨 멈추었다.

인화되지 않은 필름 15만장에 사진가 비비안 마이어가 찍어 놓은 흑백의 세상이 있었다. 무장 해제된 무심한 사진가들이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인화된 사진을 마주한 우리는 익숙한 과거로부터 경험한 통증을 확인했다. 천연색의 세상에서 흑백의 논리 속에 갇혀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때로는 무심하게 때로는 비웃듯이 남겨 놓았다. 필름 속 지난 세상으로부터, 선의로 나아간 현재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 듯했다.

셔터 소리와 함께 빛이 터졌다. 그 빛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누군가의 미소가 또 빛처럼 터진다. 피사체를 감싸는 카메라 셔터의 속도에 어떤 이의 삶이 잠시 정지된다. 비비안 마이어가 정지시켜 놓은 세상도 과거의 시간과 함께 고스란히 현재에 남았다. 그녀의 세상이 나를 사진 속, 빛의 무더기로 이끌었다. 뷰파인더를 통해 바라본 세상이 치환 가능한 허무를 보이며 프레임 안에서 영리하게 치유하고 있었다. 편견으로 무거웠던 피사체가 가벼워지고 있음을 느낀다.

조각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이 있었다. 노인의 꿈속에서 보았던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를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 속에서 보았다. 노인이 사자 꿈을 꾸는 동안 비비안 마이어는 세상을 자화상으로 찍었다. 노인이 품고 있는 바다와 바다가 품고 있는 청새치를 비비안 마이어는 사진기를 통해서 그녀의 펄떡이는 세상을 프레임을 통과한 필름으로 남겼다.

그녀의 청새치는 상처받지 않고 우리에게 무사히 도착했고 노인처럼 그녀도 사자의 꿈을 찍은 필름으로 증명했다. 노인을 따라 바다를 마주하는 소년처럼 비비안 마이어를 따라 세상을 찍는 소년이고 싶다. 초원을 노니는 사자를 보고 펄떡이는 청새치를 만나는 시간 속의 나를 찍고 싶어졌다. 노인에게는 조각배가 있었고 비비안 마이어에게는 사진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살아있음’의 시간이 지금 나에게 있다.

이정표가 되는 사진을 보았다. 나를 바라보는 거울이 사진기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사진을 배우기로 했다.

어머님의 결혼

김 명 옥 / 길 위의 인문학 참여자

남편은 2남 3녀 중 넷째로 아들로 치면 둘째 아들이다. 우리 나이 세대만 해도 큰 아들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당연시 되던 때여서 큰집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다.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으므로 나는 아버님을 사진으로만 만나 볼 수 있었다. 홀로 된 어머니는 건강하게 사시다가 92세가 되던 3년 전 가을,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내신 다음 한 달 후에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1923년에 일본에 있는 나고야에서 태어나셨다. 어머니의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조선을 떠나 일본으로 가셨던 재일조선인으로서, 그야말로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에 나고야의 시내에서 작으나마 포목점을 운영하실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두런두런 말소리에 잠이 깬 열아홉 소녀였던 어머니는 일본식 가옥의 미닫이 옆방에서 부모님이 나누시는 이야기가 자신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임을 알고 귀를 쫑긋 세웠다. 부모님은 포목점 가게 옆에 있는 조선인청년회관에 드나드는 총각들을 유심히 보고 계셨던 모양이었다. 아마도 곧 시집을 보내야 할 나이가 되는 외동딸의 배필을 물색하다가 어느 정도 부모님의 마음에 드는 청년을 찾아내신 듯 했다. 청년회관에 드나드는 조선인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중 큰아들이 풍채도 당당할 뿐 아니라 품성도 좋으며 사람들의 평가도 나쁘지 않으니 그 청년의 집애다 중신애비인 매파를 보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논을 하는 중이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용모가 수려하고 멋쟁이인 청년과 상대적으로 부유해 보이는 비단 포목상인의 외동딸과의 혼담은, 중간을 오가는 매파의 과장되고 부풀려진 언변술과 부지런한 발걸음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본격적으로 사주 단자가 오고 갔으며 본인들과는 무관하게 양가 부모님들만의 만남도 이루어졌다. 길일을 골라 혼인할 날짜도 정해졌다. 드디어 어머니께도 부모님의 언질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미담이 방 너머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나직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대화가 밤이 새도록 이어졌다. 부모님은 사위가 될 청년에게 혼인 예복을 만들기 위해 치수를 재러 와 줄 것을 요청하는 사람을 보냈었다. 그런데 양복 치수를 재고자 나타난 사윗감을 보고는 부모님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부모님이 점찍었고 사위로 삼고자 했던 그 청년이 아니었던 것이다. 미래의 사위가 될, 그 키도 크고 준수한 청년과 함께 붙어 다니던 작은 사람, 곧 동생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그 형제의 형이었던 것이다. 단지 키와 걸모습만을 보고 형과 아우를 착각해버린 상황에서 매파를 통해 형제 중 형과의 혼담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때로는 현실이 소설보다 더 신파적인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날 때가 있는 법이다.

부모님의 근심과 걱정이 며칠을 이어졌다. 결국, 어머니의 부모님은 단지 혼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파혼이 불러올 후폭풍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사위가 바뀌어버린 이 혼인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셨다. 하지만 이 결혼은 결국에는 어머니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다. 아버님은 그럴 수 없이 다정한 남편이었으며 자애로운 아이들의 아버지였으며, 또 가족들 속에서는 성실하고 헌신적인 가장으로 살아가셨던 것이다. 다만 조금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심으로 어머니에게 많은 짐을 남겨주긴 했지만 그건 결코 아버님의 뜻이 아니었다.





예비 부모와 함께하는 책이랑 아가마중

- 운영 일자 : 2017. 7. ~ 12.
- 운영 대상 : 예비 엄마, 아빠 및 도서관 이용자
- 운영 장소 : 별관II 유아자료실, 종합자료실
- 운영 내용 : 그림책 전문가 태교 특강, 태교 그림책 꾸러미 무료 택배 대출, 태교 관련 도서 코너 비치 및 목록 배부



2017 동화책 속 이야기나라

- 운영 일시 : 2017. 2월 ~ 11월 매주 토요일 14:00~15:00
- 운영 대상 : 5~7세 유아
- 운영 장소 : 별관II 유아자료실
- 운영 내용 : 월별 주제가 있는 동화구연 및 독후활동



[한 책 읽기] 골든 Book을 올려라

- 운영 일시 : 2017년 8월 중
- 운영 대상 : 창원도서관 회원 가족 20팀
- 운영 장소 : 별관II 세미나실
- 운영 내용 : 우리 도서관 한 책으로 선정된 책을 읽고 가족 독서 골든벨 운영



도서관 돌아래 벼룩시장

- 운영 일시 : 2017년 10. 28.(토) 14:00 ~ 16:30
- 운영 대상 : 창원도서관 이용자
- 운영 장소 : 별관 앞 잔디밭
- 운영 내용 : 이용자 및 직원이 함께 중고 잡화를 판매하는 벼룩시장 & 체험마당(가족공예 동전지갑) 운영



토요꿈Talk, 토요인문학산책 - 강연

- 운영 일시 : 2017년 3월 ~ 11월
- 운영 대상 : 지역주민
- 운영 장소 : 별관 I 시청각실
- 초청 강사 : 안상헌, 글배우, 태원준, 이동진, 윤용인, 오찬호 등
- 운영 내용 : 일반인을 위한 인문학 특강, 청소년을 위한 진로 꿈·특강 야간에 운영하는 별밤 인문공감 강연 등



창원도서관은 [] 다

우리 도서관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창원도서관은 어떤 곳일까요?
기발하고 톡톡 튀는 생각이 모였습니다.

▶ 응모 기간: 2017. 11. 1.(수) ~ 11. 30.(목)

● 창원도서관은 **데이트** 다.

→ 가족이지만 서로 얼굴보기가 어려운 요즘, 주말 도서관 나들이는 항상 즐거운 가족의 데이트 시간이다.

- 윤서연 -

● 창원도서관은 [] 다.

→ 괄호 안에는 무엇이든 들어갈 수 있는데, 도서관이 때로는 나에게 괄호를 채워주는 존재이기도하고 채워야 할 괄호를 만드는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 이다원 -

● 창원도서관은 **쉼터** 다.

→ 일상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책을 읽으며 풀 수 있고 책을 읽으면 복잡한 마음이 정리되기 때문이다.

- 주혜린 -

● 창원도서관은 **샘물** (이)다.

→ 자꾸자꾸 즐거움이 샘솟으니까

- 정라운 -

● 창원도서관은 **내일** (이)다.

→ 도서관에 간다는 것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것이다.

- 이용후 -

● 창원도서관은 **추억** (이)다.

→ 학창시절부터 오래 다닌 꿈 많은 시절의 장소라서

- 진현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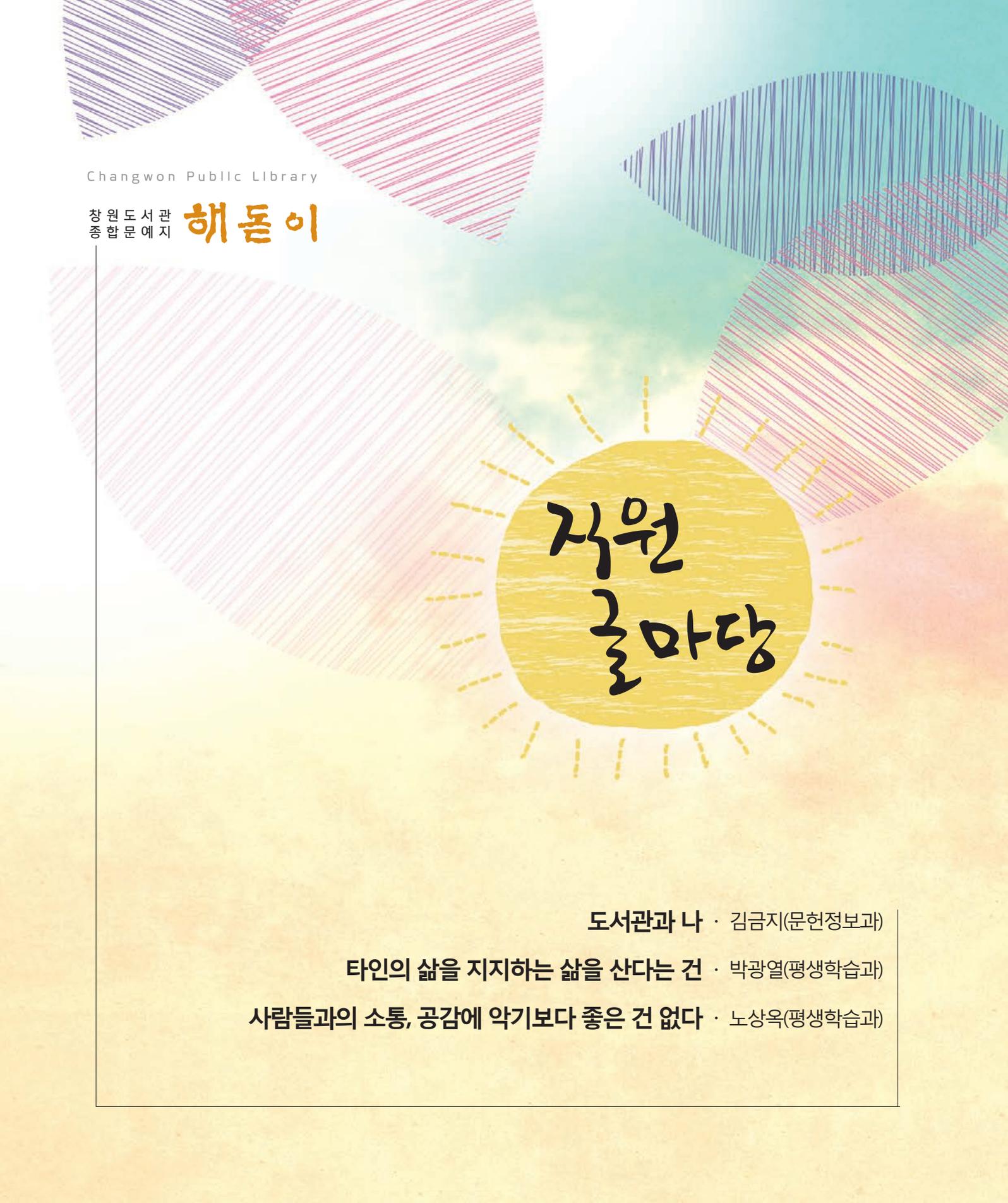
- **창원도서관은 발 (이)다.**
 - 심으면 심은 대로 농작물이 수확되듯이 책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정신적 열매를 많이 수확할 수도 있다. - 강소연 -
- **창원도서관은 번데기 다.**
 - 작은 애벌레가 멋진 날개를 가진 나비로 탄생할 수 있는 기적의 장소이듯 도서관도 멋진 인생의 날개를 펼칠 수 있게 하는 통로이다. - 강소연 -
- **창원도서관은 타임머신 (이)다.**
 - 책을 통해 가고 싶은 시대로 가볼 수 있으니까 - 박단비 -
- **창원도서관은 여유로움 (이)다.**
 - 시간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며 마음의 여유로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 김미영 -
- **창원도서관은 휴식 (이)다.**
 - 인터넷, TV, 스마트폰 등과 헤어지고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사색을 즐기는 시간이므로 - 허수현 -
- **창원도서관은 도시락 (이)다.**
 - 머리와 가슴의 허기짐을 채워주기 때문이다. - 윤효식 -
- **창원도서관은 레몬 (이)다.**
 - 레몬의 신맛처럼 처음 도서관에 발들이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 맛을 알고 나면 풍부한 책과 다양한 행사에 중독되어 빠질 수밖에 없다. - 김선희 -
- **창원도서관은 누군가 (이)다.**
 - 시대를 초월한 다양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있고 이를 내 삶의 교훈으로도 삼을 수 있는, 도서관은 나에게 지침서가 될 수도 있을 누군가의 삶이다. - 심민경 -



Changwon Public Library

창원도서관
충합문예지

해돋이



자원
글마당

도서관과 나 · 김금지(문헌정보과)

타인의 삶을 지지하는 삶을 산다는 건 · 박광열(평생학습과)

사람들과의 소통, 공감에 악기보다 좋은 건 없다 · 노상옥(평생학습과)

도서관과 나

김금지 / 문헌정보과 독서진흥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의 손을 잡고 언니와 나는 동네 도서관을 찾았다. 집에서 도서관까지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고, 공원을 오르기 전에 위치해 마치 소풍을 가는듯한 느낌이 들었다. 키가 또래에 비해 작았기에 높은 서가까지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던 게 신기했던 기억이 난다. 그날 대출증을 만들고 《나폴레옹》과 《이순신》 위인전 두 권을 빌렸다. 엄마와 함께 일주일 뒤에 책을 반납하러 오자며 약속했다. 그게 도서관에서 나의 첫 추억이다. 어릴 적 다른 장소들은 처음 방문했던 것을 떠올려 보려하면 기억이 나질 않는데, 도서관에 처음 갔던 기억은 아직까지도 생생히 남아있는 것을 보니 나에게 있어 도서관이란 곳이 꽤나 강렬했던 곳이었나 보다. 그 뒤로도 학교 숙제 답을 찾을 때나 주말, 방학이면 도서관을 찾았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책을 굳이 읽지 않더라도 도서관의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그렇게 자주 찾았던 도서관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부끄럽지만 발길이 뜸해졌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할 때 시험이 다가올 때면 어김없이 도서관을 찾았고, 도서관은 내 곁에서 묵묵히 나의 학창시절을 함께 해주었다. 본격적으로 진로와 직업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을 때, 내가 어릴 적부터 흥미 있어 하고 좋아했던 게 무엇인지 떠올려 보았다. 유물이나 유적들을 좋아했기에 박물관에서 일하고 싶어 학예사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게 되었다. 그러다 도서관 사서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딘지 모르게 두 직업은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았다. 유물 또는 책을 수집·관리한다는 점, 전문지식을 쌓아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준다는 점 등이었다. 고민 끝에 문헌정보학으로 진학해 사서라는 꿈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되었다. 대학에서 각종 전공과목들을 배우면서 공공도서관 사서가 되고 싶다는 꿈이 커졌고, 그 꿈을 이루어 현재 창원도서관 사서가 되었다. 처음 하게 된 업무는 어린이실, 디지털자료실을 맡은 동기들과는 다르게 유치원, 초등학교, 소외시설, 공원 등을 찾아가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북버스였다. 당연히 도서관 내에서 근무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매일같이 밖으로 나가야하는 업무이다 보니 걱정도 되고 수업을 해야 했기에 많은 부담이 들었다. 왜 내가 이 일을 맡게 되었을까 내심 속상하기도 불평하기도 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림책을 읽어줄 때, 독후활동을 할 때면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반짝이던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서 보람도 느꼈다. 10개월이란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떤 책을 읽어주면 좋을까?’, ‘어떻게 읽어주면 좀 더 재밌을까?’, ‘책 읽어주기 전 첫마디로 무슨 얘기를 꺼내볼까?’, ‘독후활동으로 무엇을 해볼까?’와 같이 수업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기에 초보 사서인 내가 한 층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 지금은 업무가 바뀌어 월별 독서진흥 행사를 담당하고 있다. 2년 남짓 안 되는 기간 동안 도서관 잔디밭에서 벚룩시장도 운영해보고, 사생대회도 해보고, 독서 골든벨 진행을 위해 떨리지만 마이크도 잡아보았다. 또 자유학기제로 도서관을 찾은 청소년들에게 진로와 관련한 수업도 해보는 등 많은 경험들을 했다. 행사에 참여한 가족들이 나를 알아보고 도서관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때면, 행복하고 가슴이 뭉클해질 만큼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 아직도 덜렁대고 실수투성이라 부족한 게 너무도 많지만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있어 이 또한 나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 2015년 3월, 첫 출근길의 설레던 발걸음이 어제만큼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의 경치를 눈에 많이 담으려다 보니 10분 남짓 거리를 30분이나 넘도록 걸었던 때가 기억난다. 바로 며칠 전 같은데 벌써 시간이 흘러 다음 봄이 지나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 창원도서관을 떠나게 된다. 봄이면 도서관 앞에 피고 지던 벚꽃이, 직원들과 함께 걷던 꽃길이 많이 그리울 것 같다.

타인의 삶을 지지하는 삶을 산다는 건.....

박 광 열 / 평생학습과 평생학습

나의 지인 A씨는 휴일에 도서관에 가는 것을 어느 것보다 좋아한다.

휴일이면 꼭 자도 좋을 것이고 산에 가든 여행을 가든 취미생활을 하면 될 건데, 시험공부하는 것도 아닌 책만을 위해 도서관에 간다는 건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 이유를 물었다. “도서관은 온전한 나 자신과의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장소이고,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수많은 위인들을 책을 통해 만날 수 있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업을 통해 자기계발 및 개인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dvd나 책 대여는 물론이고 영화도 관람할 수 있는 진정한 힐링의 장소이지요. 무엇보다 더 좋은 건 이 모두가 다 공짜이지요.(웃음)”

우리 현대인들은 누구나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가정에서 그 나름의 역할에 치여 살다 보면 자신만의 삶을 살기 힘든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기 자신과 대면하여 내가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자신의 민낯을 들여다 볼 시간도, 여유도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서관이 ‘힐링’의 장소로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니 도서관 근무자로서 책임감이 느껴진다. 내 자리가 이렇게 타인의 삶을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나름의 긍지도 생긴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과 긍지를 느낄 때 행복한 삶의 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본다.

나의 적극적인 업무가 도서관 이용자들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할 수 있다면 내 가슴은 뭉클할 것이다. 어린아이부터 팔순의 어르신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꿈과 일상이 여기 도서관에서 살아 숨 쉬고 있기에, 우리 도서관 직원들이 그들의 꿈을 응원하고 힘을 보태고 있다고 생각하니 오늘 하루의 근무로 쌓인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다.

책을 보는 사람들은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이므로 이들의 삶을 지지하는 자로서 나는 내 역할에 긍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근무하고자 한다. 타인의 행복을 지지하는 내 삶도 더불어 행복하다.

사람들과의 소통, 공감에 막기보다 좋은 건 없다

노 상 옥 / 평생학습과 평생학습

설렘과 어색함을 가지고 창원도서관에 출근하는 첫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할 평생학습 운영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기획 업무를 해야 한다니 가슴이 막 요동치고 있었다. 생소한 업무이다 보니 두렵고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낙약한 마음이 참 컸던 것 같다. 그렇게 며칠 동안 내가 맡은 프로그램 업무를 살펴보다 눈에 띄는 강좌가 보였다.

바로 기타 강좌!

지금까지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며 그냥 관심만 가지고 있었던 터라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볼까하는 마음에 주저 없이 기타를 구입하고 다가오는 목요일을 기다렸다. 목요일 전날 밤은 웬지 설레 잠이 오질 않아 기타를 몇 번이고 꺼내어서 만져봤던 것 같다.

드디어! 목요일 저녁 야간 기타 강좌반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강사 선생님의 기타 실력이 보통이 아니어서 놀라웠던 기억이 난다.

‘이제부터 강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자. 그러면 나도 잘할 수 있겠지.’ 하는 용기가 생겼다. 수업은 내 예상보다 더 재미있었고, 혼자 하면 몰랐던 부분까지 설명을 듣고 하니 술술 풀리는 것 같았다.

나에겐 집에 가면 반겨주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다.

항상 퇴근 후 같이 놀아주곤 했는데, 이때부터 퇴근하면 기타와 놀기 시작했다. 그 때문에 강아지와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다. 집에 가면 잠깐 꼬리를 흔들다가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다.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 그래도 내손에서 기타가 떨어지지 않았다. 밥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항상 연습을 한 것 같다.

하나의 주법과 코드 변환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있어야 하는구나 하며 혼자 감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주법과 코드를 익히고, 노래를 한곡, 한곡 칠 수 있을 때마다 성취감을 느꼈다.

지금은 악보를 보면 더듬더듬 혼자서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다.

또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마다 기타가 소통의 매개체가 되어준다.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사람들과 기타를 배우면서 서로를 독려하고, 고민도 들어주는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된 것 같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많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 평소 관심이 있었던 분야의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열심히 배워나가다 보면 아마도 삶에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신이 하고 싶고, 재미있어 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져라.”

누군가의 말이 뇌리를 스친다. 지금 현재 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담당을 하면서 재미있는 기타 강좌도 듣고 보람을 느끼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

해돋이 2017년 제 30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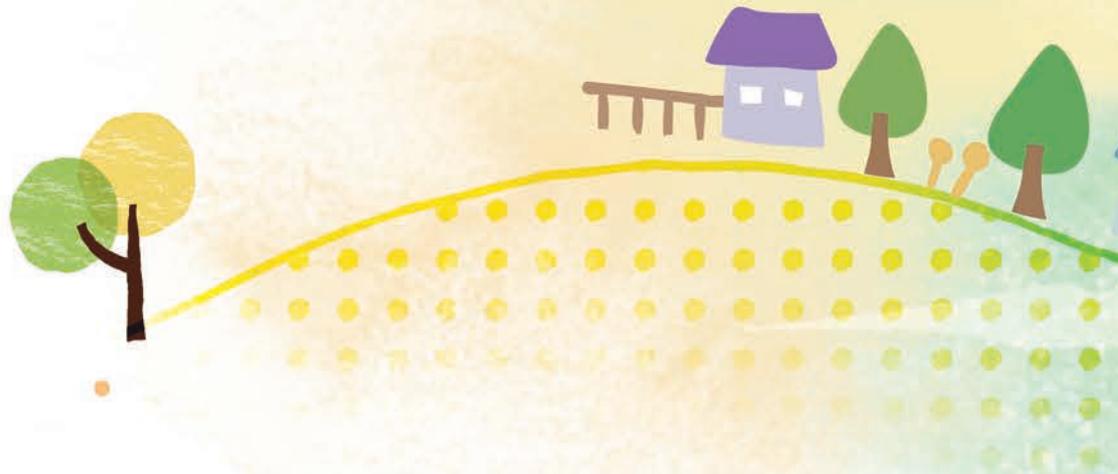
인쇄일 : 2017년 12월 29일

발행일 : 2017년 12월 29일

발행 : 창원도서관 문헌정보과(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03)
(055)278-2832

<http://cwlib.gne.go.kr> <비매품>

Changwon Public Library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http://cwlib.gne.go.kr>